한국일보
우리의理想은健全한新聞

北傀 軍事力감소 징후없다

위컴司令官 全經聯연설

美·中共관계改善 한국經濟 기회擴大

駐韓美공군기 2년내 F16으로 代替

존·A·위컴駐韓美軍사령관은 23일 韓半島를 포함, 東北亞평화안정을 위해 앞으로 2년동안 駐韓美공군의 F4기를 F16전투항공기로 대체하고 1개의 A10美空軍지원비행대대를 전개시킬계획으로 있는등駐韓美軍의 전투준비태세를발전시키고전투력및지구력을증강시키는데주력하겠다고밝혔다.

위컴사령관은 이날 아침全經聯이 汝矣島全經聯회관 경제인클럽에서 마련한 최고경영자와의 조찬회에 참석,『한국방위에 있어서의 미국의역할』이란 주제연설을통해 이같이 밝히고 최근 진행되고있는 美·中共관계의 개선은 세계평화는 물론 한반도를포함한 東北亞의 평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한국에 대한 경제적 기회도 확대시켜줄것으로 내다봤다.

위컴사령관은 또 소련의팽창및 南進을 저지하기 위해 경제대국인 日本에대해 방위비부담증대를 권유하고 있으며 그들의태도변화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北韓의 金日成과 對韓침략을 바라거나 지원할지도 모를 어떠한 동맹국들에도 韓美양국의 연합군이 어떠한형태의 공격도 격퇴시킬것이라는데 의심할 여지가 없다는사실을 깊이인식시켜주어야한다고 강조하고 韓美연합군은 필요할경우 美본토의 증원을받아 北韓의 공격을 격퇴시킬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우리의 최우선목적은 전쟁방지, 즉 北韓으로부터의 침략을 저지시키는것이라고 말했다.

위컴사령관은 현재 北韓이 군사적 위협이 감소됐다는징후는 보이지 않고 北韓은 한반도의 무력적화통일만을 구상하고 있다고 전제, 최근 워싱턴에서열린 全斗煥대통령과 레이건美대통령간의 성공적인 회담에서 미국은 한반도에서의 전쟁억지를 위해 미국의 한국에 대한 책임을 재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위컴대장은 따라서 우리軍은 전쟁에 싸워서 이길수 있는 준비태세를 갖추어야한다고 말하고 이를위해 이번회계연도에는 지난해보다 2배%가 늘어난 1억1천5백만달러의 군사건설자금을 들여 군사건설공사를 진행중에 있고 차기회계연도에도 이같은 수준의 자금을들여 지원임무소요에 필요한 시설건설및표준이하의 시설을 대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한국방위계획에 있어서 특수한역할을 담당하는 美2사단의 전투능력을 발전시키고있는중이라고 밝히고 2사단은 이미 M198 155mm 신형곡사포(토우 하우처미사일)를 공급받기 시작했고 AH-1G 코브라헬機를 토우대전차미사일을 구비한 S모델로 교환하는계획도 승인받아 2사단의 대전차능력은 크게 향상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밖에 그가밝힌 요지는 다음과같다.

▲올해 안보협의회에서 周永福·와인버거국방장관간에 한국시설을 이용한 美國장비 정비확대방안을 공동으로 연구하는것이 합의된데따라 이미 정밀검사중이고 大韓航空에서는 美공군및 해군의 F…

◇위컴 駐韓美軍사령관。

政府米값 평균5%引上

오늘 零時부터 差等價格制 채택

上品(80kg) 5만4천3백80원

普通米는 4만6천7백원 現行대로

消費者가격

정부는 24일 0시를 기해 쌀·보리쌀등 정부미방출 가격을 평균 5%인상키로 했다. 정부는 정부미방출가 인상과 함께 정부單一米를 上品米와 普通米로 구분하는 差等價格制를 채택, 올하반기 단일미방출 추정량 7백만석의 71·4%에 해당하는 보통미의 방출가는 그대로 두는대신 전체방출량의 30%미만이었던 質이좋은 上品米는 80kg가마당 5만1천6백80원으로 17·5%인상, 새로 방출키로했다.

混合穀10kg 3천7백원→3천8백60원

보리쌀76·5kg 萬9千3百→2萬백80원

이에따라 방출가격은 혼합곡이 10kg들이가 3천3백20원에서 1백66원(5%)이 오른 3천4백86원으로, 보리쌀은 76·5kg들이 가마당 1만7천5백95원에서 8백80원(5%)이 오른 1만8천4백75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이같은 방출가인상으로 소비자가격은 혼합곡이 10kg부대당 3천7백원에서 3천8백60원으로 4·3%, 보리쌀은 76·5kg들이 가마당 1만9천3백원에서 2만1백80원으로 4·6%가 올랐고 정부단일미중 보통미는 종전과같이 80kg들이 가마당 4만6천7백원, 상품미는 80kg들이 가마당 5만4천3백80원으로 올랐다.

농수산부당국은 單一米의 價格差等制를 채택한것은 올 상반기중의 정부미방출량 7백만석중 보통미의 소비량이 70%이상을 차지, 일반미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最少化하기위해 보통미가격은 인상하지않았고 일반미와 米質이 비슷한 上品米방출가를 평균인상률 이상으로 인상, 一般米價에 접근시킴으로써 上品米를 일반미로속여파는 부정유통행위를 줄이기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농수산부 당국은 上品米質의 내용은 정부보유密陽米(통일계), 미국및濠洲産칼로스(통일벼계통米質과비슷하다)로, 보통미는 일본古米이거나 미국南部米·버마·이탈리아·스페인·브라질産쌀에 찬쌀 또는 도입 칼로스를 9대1 또는 7대3비율로 혼합해서 米質을높인 쌀이라고 밝혔다.

◇정부糧穀放出價調整내역

穀種	單量	現行 放出價格	現行 消費者價格	調整 放出價格	調整 消費者價格	引上率 放出價格	引上率 消費者價格
混合穀 (混合穀中쌀)	kg 10	원 3,320	3,700	3,486	3,860	% 5·0	4·3
	80 (kg當)	30,060 (376)		31,560 (394·50)		5·0	
보리쌀	76·5 (kg當)	17,595 (230)	19,300	18,475 (241·50)	20,180	5·0	4·6
單一米 普通米	80 (kg當)	44,000 (550)	46,700	44,000 (550)	46,700		
上品米	80 (kg當)	—	—	51,680 (646)	54,380		

美洲行항공運賃 21·9%引上

우리나라에서 美洲지역을 가는 국제선 항공여객운임이 오는8월1일부터 평균 21·9%가 오른다.

교통부는 23일 한국~美洲 노선간의 국제항공운송협회(IATA)기준운임이 8월1일부터 인상됨에따라 KAL(대한항공)의 국제요금을 올리기로 결정했는데 이에따라 서울~호놀룰루간은 현행 아리랑요금이 4백69달러에서 5백85달러(IATA요금 6백70달러)로, 서울~로스앤젤레스간은 현행 5백93달러에서 7백15달러(〃7백94달러)로, 서울~뉴욕간은 현행 8백4달러에서 9백68달러(〃1천47달러)로 각각 오르게된다.

李英燮 前대법원장 國政諮問委員 위촉 全대통령

全대통령은 23일 李英燮前대법원장을 國政諮問위원으로 위촉, 이날상오 청와대에서 위촉장을 주었다. (사진) 이자리에는 金容烋총무처장관이 배석했다.

技能올림픽 選手團 全大統領 勳章수여

許검찰총장 "民願部署 비위內査중"

가벼운 少年·婦女子범죄 拘束억제

【光州=聯】許亨九검찰총장은 23일 앞으로 소년범 부녀자범죄및 죄질이 가벼운 폭력범등에 대한 불구속처리를 확대하기위해 인신구속억제 방법을 연구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許총장은 이날하오 光州고검과 지검을 초도순시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고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선진국이나 인구에 비해 인신구속비율이 너무 높았다고 지적, 현재 교통사범에 적용하고있는 불구속 처리를 확대, 소년범과 부녀자범죄및 비교적 죄질이 가벼운 폭력범등에 대해서도 가급적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유도 선도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許총장은 이를위해 검찰은 인신구속이 바로 징벌의 효과를 거둘수있다는 종전의 관념을 고쳐 몇주의 상태만으로도 무조건 구속하는 사례를 지양, 범죄유형별로 범죄동기와 정황등을 참작, 구속인원을 크게줄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許총장은 또 신속한 사건처리를 위해 검찰에서의 구속기간은 10일이내에 처리하도록 하고 불가피할 경우라도 구속기간을 연장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許총장은 이어 공무원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검찰은 이미 민원부서의 창구담당직원들을 중심으로 각급행정기관에 대한 비위와 부조리를 내사중이라고 밝히고 적발내용에 따라 인사조치토록 통보하거나 형사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韓日 9월10일 각료會談 開催

東京서

이번 회의에는 우리측에서 외무, 재무, 상공, 농수산, 건설, 경제기획원장관등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韓日頂上회담 9월~내년初 日紙보도

【東京23日聯=聯】일본정부는 오는 9월에서 내년초사이에 全대통령과 스즈끼·젠꼬日本수상간의 韓日정상회담을 갖기 위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日本의 아사히(朝日)신문이 23일 보도했다.

구독신청은
(416)
533 · 2361

종합보험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상해보험 •R.R.S.P
•빌딩 · 상점
※10년이상의 경험
※모든 보험에 관한 문의 환영
최저의 프레미엄 보장
Stan Herman
(B)425－4994
(R)293－17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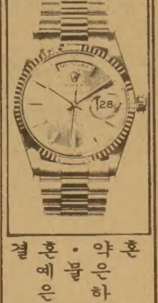
社會漫評

하루에 두차례씩만…

地平線

구독신청은
(416)
533 · 2361

ROLEX



결혼 · 약혼
예물은
은하
보석상에서

오늘의 금은 시세
금 : 온스당
US 409
은 : 온스당
US 8.51

은하 보석상
635 BLOOR ST.
534－9977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금
교육, 은퇴,
모기지 적금.
부동산

김 종 조
535－0028
535－7200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416) 532-2727

주간女性

한국관

새로운 메뉴로 여러분의 식탁을
풍성하게 서비스하고 있아오니 꼭
왕림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연말연시 각종연회, 동창회, 결혼피로연,
환갑잔치등 각종모임, 단체손님 대환영

※특별메뉴
곱창전골백반
생선초밥
꼬리곰탕
즉석불고기
민어매운탕
육회, 어초회

•영업시간• 오전11시~새벽1시
628 BLOOR ST. W. ☎: 536－0290, 531－0277

蘇·아프간叛軍 최대激戰

舊首都 파그만市서 쌍방死亡者 수백명

◇防空壕로 피하는 유모차 이스라엘領 북부 갈릴리 키르야트에 거주하는 한부부가 21일 팔레스타인 게릴라들의 로키트 포격이 시작된 가운데 유모차를 이끌고 황급히 방공호로 달려가고있다. 【키르야트 (이스라엘) 22日UPI電送=聯合】

蘇軍、住民 무차별射殺

占領후 가장치열 탱크3百臺 동원

【이슬라마바드22日UPI=聯合】 아프가니스탄수도 카불의 서북방27㎞지점에위치한 구하계수도 파그만市에서 지난13일부터 3일동안 아프간 주둔소련군및 아프간 정부군과 회교반군자에 소련의 아프간 무력점령이래 최대규모의 전투가 벌어져 아프간將士생도 70명을 포함, 쌍방자에 수백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으며 파그만의 주민 수백명이 소련군의 잔혹한보복공격으로 살해됐다고 이슬라마바드의 한 서방 외교관이 22일 밝혔다.

이외교관은 지난수주동안 파그만주변지역에서 산발적인 전투를 벌여온 소련군및 아프간정부군과 회교반군들이 지난13일부터 3일간에걸쳐 소련의 아프간 침공이래 최대의 접전을 벌인끝에 전투에 투입됐던 아프간육사생도 3백명중 70여명이 사살됐다고 전했다.

이 외교관은 소련군이 반군들에 대한 보복및 파그만의 반군거점들을 초토화시키기 위해 지난14일 3백대의 탱크 트럭 장갑차및 다수의 미그제트전투기등을 동원, 파그만지역의『혼란들에 포격·폭격·기총소사를 가했다』고 말하고『공격을 피해 인근 언덕지대로 피신하는 주민들에 무차별 사격을 가해 수백명을 살해했다』고 강조했다.

소련군과 정부군은 15일에도 4대의 장갑차를 앞세워 파그만으로 몰려들어와 4시간동안 누비고다니면서 가옥들에 기관총공격을 가해 다수의 주민들을 사살했다고 그는 전했다.

한편 13일의 전투에 투입된 10代의 아프간육사생도들은 叛軍들에 의해 포위돼 항복권유를 받았으나 3백명중 70명은 이를 강력하게 거부하다가 사살됐다고 이외교관은 전했다.

美 국무성代辯人 ″이스라엘 制裁반대 F16機 引度보류、이非難의도 없다″

【워싱턴21日AP=聯合】로널드·레이건 美行政府가 이스라엘에 대해 F16전투기의 인도를 계속유보하기로 결정한 것은 이스라엘을 비난하는의도에서 취해진 행동이 아니며 미국은 이스라엘에대한 어떠한 제재조치에도 반대한다고 앨런·롬버그 美국무성대변인이 21일 밝혔다.

그는 전날인 20일 美國정부가 앞으로 F16전투기의 對이스라엘판매를 무기한 보류하겠다고 발표한 성명과 관련 이같이 밝히고 이러한 美정부의 결정은 이스라엘에대한 비난이기보다 현中東戰에 대한 온건한 영향력행사로 취해진 조치라고 해명했다.

對이·美 보복方案논의

아랍 外相·國防相 합동회의開幕

【바레인22日AFP=聯合】아랍의 외상및 국방상합동회의가 23일 튀니스에서 개막되는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게릴라공격에 대한 대응방안과 이스라엘과 미국에대한 보복조치등을 논의한다.

이번회의는 이스라엘의 베이루트공습으로 수백명의 사상자가 발생한후 야세르·아라파트 팔레스타인해방기구(PLO)의장의 긴급요청에 따라 열리게 된것으로 이란-이라크戰을 둘러싸고 크게 분열됐던 아랍권의 결속이 또다시 시험대위에 오르게됐다.

현재 일부 아랍국들은 PLO의 레바논에 대한 경제·정치지원을 다짐하고 있으나 아랍 에미리트연합은 재정적 원조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지적、아랍석유수출국들을 포함한 모든 아랍국들이 이스라엘에맞서「모든자원」들을무기로 사용할것을 촉구하고있다.

관측통들은 아랍 에미리트연합의 이같은촉구가 이스라엘과 그맹방들에대한 석유또는 페트로·달러의 武器化를 의미하는것이라고 풀이했다.

베이루트의 정통한 소식통들은 이번 國防相合同회의가 팔레스타인人들에 대한 지원을 다짐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할것으로 보이나 아랍권의 일치단결된 군사대응책은 수립하지는 못할것이라고 말했다.

이 소식통들은 또 이번회의에서 對PLO재정원조증액이 결정될것이며 레바논도 재정적인도움을 받게될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對越 무력抵抗모색

印支3國 망명指導者들 회담

【홍콩22日AFP=聯合】인도차이나3국의 주요망명지도자들은 라오스·캄보디아·베트남망명세력의 연합전선을 형성、공산베트남에 대한 무력저항을 모색하기위해 워싱턴과 뉴욕에서 일련의 비밀회담을 가졌다고 22일 홍콩에서 발간된 파·이스턴·이코노믹·리뷰誌의 최신호가 보도했다.

이 주간英字誌는 약80개국의 대표단이 참가한 캄보디아문제에 관한 국제회의분위기가 불만스러운것인데 반해 현재 망명중인 이들 인도차이나 전지도자들의 기분은 흥분에 도취돼있다고 전했다.

이들 망명지도자들은 미국이 공개적인것은 아닐망정 은밀하게 北京당국과 손잡고 反베트남반군들에 정치·군사적지원을 제공할것으로 기대하고있으며 아세안역시 개입할조짐이 있다고말했다.

이、레바논攻擊 強化

팔抵抗완강…中東戰재발危機 높아

【베이루트22日AP·UPI=聯合】이스라엘은 22일 지중해연안 보급요충지 티레등 레바논영내의 수개 팔레스타인 거점도시들에 대한 육·해·공3面공격을 다시 강화하는 한편 레바논 남부일원에 대한 포병력을 이미 증강했으며 레바논내 팔레스타인 게릴라들은 이스라엘군 공격에 완강히 저항, 중동전쟁의 위험을 더욱 고조시키고있다.

이스라엘은 이날 오전 베카계곡戰線에 이르는 레바논內 地中海연안 주요보급요충지인 티레일원에 대규모 육·해·공 3面작전을 강행하는 동시에 티르북쪽 8㎞지점의 리파니江 일대에대한 공습을 재개, 지난주공습시 파괴된 철제교량대신 임시로 가설된 교량 2개를 다시 파괴하고 30여명의 사상자를 내게하는한편 택시와 트럭 3대씩을 폭파시켰다고 현지 보도들이 전했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레바논영내에 잠정주둔중인 유엔평화유지군의 한 대변인은 이날 레바논남부 최서단의 이스라엘 우익기독교민병대 거점지역인 마르자윤 크파르켈라에 현재「대규모」의 이스라엘군병력및 포대가 집결하고있음이 현지보고들에 의해 확인됐다고 밝혔다.

平和노력 파괴 와인버거、베긴非難

【워싱턴23日UPI=聯合】캐스퍼·와인버거美국방장관은 22일 이스라엘이 레바논 영내의 팔레스타인기지를 폭격함으로써 필립·하비브美특사의 中東평화노력을 파괴하고있다고 강력비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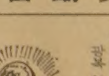
와인버거장관은 이날 ABC·TV와의 회견에서 美행정부의 지금까지의 對이스라엘비난중 가장 강력한어조로 이스라엘의 폭격행위를 비난하면서 하비브특사가 그동안 두번이나 실질적인 평화협상 진전을 이룩해놓았으나 이스라엘은 두번다 폭격행위로 대응함으로써 모든일을 원점으로 돌아가게 만들었다고 지적하고 베긴수상이 좀더온건한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對中共 군사유대必然″ 허멜 次期駐中美大使 언명

【워싱턴23日UPI=聯合】신임北京주재 美대사로 임명된 아더·허멜씨(61)는 22일 미국이 중공과 새로운 군사관계를 맺는것은 양국관계의 당연한 귀결이라고 말했다.

국무성내의 中共문제 최고 전문가로 레이건 대통령에 의해 차기中共대사로 임명된 허멜씨는 이날 上院외교위인준청문회에서 그같이 말하고 소련이 미국의 對中共무기판매를 소련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하는것은 비논리적이라고 지적했다.

메아리 — 기념鑄貨



취미와 투자라는 양면성을 지닌 화폐수집에 관심들이 매우 높아졌다. 우표수집은 어린이까지 들뜨게 한만큼 보편화되었다. 돈수집은 이에 못미치나 상당한 인기를 끌고있음이 틀림없다.

국내외의 古貨는 구하기가 어려워 상당한 노력을 들여야 얻어지나 기념주화는 비교적 입수하기쉬워 발행될때마다 수집가들을 흥분시킨다.

화폐수집의 기본요령은 희소도、보존상태、인기도의 선택에 달렸다. 수집가들은 취미90%、투자10%의 생각에서 출발하는것이 좋은 자세라고 한다. 그러나 배금사상이 이비중을 뒤집어 놓아 부가가치에 더 매력이 끌리는 것이 현실이다.

古貨인 은화 한닢이 31만달러넘게 팔린일이 있다. 1974년 6월 스위스의 취리히에서 경매에 붙여진 아테네의 1데가드라큼 은화는 27만2천달러나 되었다. 여기에 수수료등을 합쳐 31만여 달러가 된것이다. 舊韓末인 1906년에나온 20원짜리 금화는 국내 시중에서 1천만원까지 값을 부른다는 이야기가 한때 전해졌다.

물론 이런 경우는 하늘의 별따기처럼 극히 드문 일이지만 기념주화는 대개발행과 동시에 10~20%가량의 프리미엄이 붙는다고 보는게 상식이다. 5년쯤 지나 8배로 뛴것도 있다. 기념주화는 이런 부가가치때문에 각축「과열의불의」를 빚는다.

제5공화국을 축하하는 기념주화가 내달 14일에 나온다. 건국후 기념주화를 발행하기는 이번이 네번째-.

70년 미주지역을 대상으로「대한민국5천년영광사」기념주화가 한세트 6백80달러로 팔렸다. 이중 10%가량이 지금 국내에 역류하여 4백만원이라는 高價의 위세를 보인다.

광복 30주년인 75년 여름엔 1백원짜리 白銅貨 5백만개가 나왔으나 즉시 퇴장됐다. 그리고 78년 서울에서 열린 세계사격대회를 기념한 주화는 나오기도 전에 큰 소동을 일으켰다. 한국은행앞의 장사진과 그 혼란속에 20여명이 다친 불상사는 아직도 씁쓸한 기억으로 되새겨 진다.

광복의 달에 나올 이번 기념주화는 저축성예금 가입자에게 교환된다고 하니 지난날의 소란은 재연되지 않을것이다.

이 주화들도 예금가입자가 아니곤 구경하기 어려울것이 확실하다.「惡貨가 良貨를 구축한다」는 그레섬의 법칙은 오늘에 와선「良貨는 구축되지 않고 숨어 버린다」고 수정해야되겠다.

不法化된 치명적 덤덤彈 蘇서 步兵부대에 支給

新型 AK74小銃用…人體내서 다시 여러갈래 破片으로

【런던23日聯合】소련은 국제조약상 불법화 되어있는 치명적「덤덤」彈과 유사한 총탄을 보병부대에 지급하고 있다고 영국의 권위있는 제인스보병무기연감이 23일 밝혔다.

전세계 군사력과 군사기술정보에 정통한 이 연감은 이날 최신호에서 소련육군에 현재 지급하고 있는 신형AK74소총용 총탄으로 덤덤형탄환을 생산하고 있다고 밝혔다.

덤덤탄은 보통탄환이 人體에 조그만 구멍을 내는데 반해 인체안에서 여러 갈래의 파편으로 쪼개지면서 커다란 상처를 내는 치명적인 탄환으로 헤이그·제네바조약등 여러국제조약상 사용이 금지되어있다.

제인스보병무기연감은 또한 서독이 사상처음으로 탄창없는 탄환을 발사토록되어있는『혁명적』인 기관단총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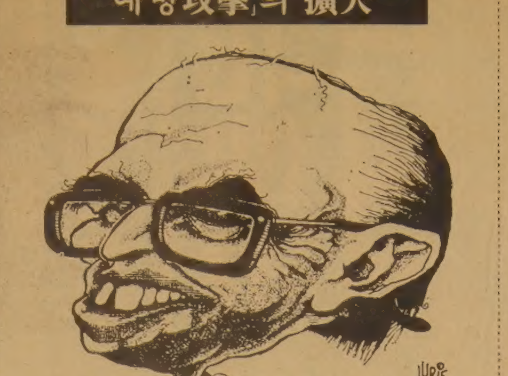
이 연감은 주기적으로 총신을 바꿔줘야하는 재래식에 비해 이 신형기관단총은 탄창없는 탄환을 사용하기 때문에 총신이 손상될 염려가 없으며 이기관단총에 사용되는 탄창없는 탄환은 재래식에 비해 가볍고 정확도가 높다고 설명했다.

연감은 이 기관단총을 개발하는데 13년이 소요되었으며 오는84년까지는 西獨육군에서 시험을 완료、그뒤 곧 지급될것이라고 밝히고 이신형무기가 사용되면 재래식 小火器들은 시대에 뒤떨어진 폐물이 되고 말것이라고 말했다.

제인스보병무기연감은 이어 브라질이 소총에서부터 對空砲에 이르는 각종 무기를 생산、판매함으로써 세계의 주요무기생산국으로 부상하기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베긴의 賭博 (上)

中東戰 또 터질것인가



「예방攻擊」의 擴大

◇베긴 이스라엘首相

「제한報復」에서「原因제거」로 政策·작전 聖書빌어 正當化

″理性보다 本能으로 행동한다″ 非難받아

베이루트 시가는 아침나절에 가장 붐빈다. 행상의 목청도 높고 장보러나온 남녀의 발길도 매우 바쁘다. 모두들 불볕이 내리쬐어 땅이 달구어지기 시작하는 정오가 되기전에 거리에서 봐야할일들을 끝내야하기 때문이다.

지난 7월10일 이스라엘전폭기 편대는 그런 아침나절의 베이루트를 덮쳤다. 무너져내린 아파트주변은 아비규환. 콘크리트 더미속에서 시체가 줄줄이 끌려나오고 피투성이가 된 가족을 찾는 울부짖음은 처절했다. 베이루트시가는 헌혈을 호소하는 구급차의 사이렌소리로 진종일 요란했다. 이날민간인 2백명이 죽고 부상을 입은 사람은 6백여명이 넘었다.

곧이어 이스라엘 베긴수상의 성명이 나왔다.『이번 작전은 팔레스타인 게릴라 지휘본부를 표적으로 한것이다. 그들이 고의적으로 민간거주지역에 자리를잡고있어 민간인 피해가 있을줄로 안다. 하지만 그런희생은 오직 팔레스타인게릴라측에 자리를 마련해준 레바논정부의 잘못때문에 빚어진 것이다』

74년이후 처음으로 단행된 이스라엘의 베이루트 폭격은 민간인희생자가 엄청나다는 점 말고도 이스라엘이 生存權수호라는 명분아래 취하는 예방적 공격의 개념이 크게 확대되었음을 보여주었다.

이런 개념의 확대적용은 지난6월 이라크 원자로를 기습공격한데서 이미 드러났지만 최근 2주이상 레바논영내에 퍼붓고 있는 공격을 통해서 더욱 확실해진것이다.

이번 분쟁은 레바논남부국경의 팔레스타인 게릴라들이 이스라엘영내 키르야트시모나、나하리야、머풀린등 3개국경촌에 소련제 카추샤砲 공격을 해온데 비롯되었다. 그런데 이를 응징할 목적으로 단행된 이스라엘의 작전이 종전처럼 보복이라는제한적 성격을 벗어나 원인을 除去하려는데까지 목표를 확대한것이다.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격렬한공습에다 地上軍까지투입、이미 레바논땅의 4분의1을 고립시키는데 성공했다. 그리고나서 팔레스타인 게릴라들이 이스라엘 국경지대에서 철수해야만 휴전에 응할뜻을 비치고있다.

베긴정부는 이스라엘을 공격할수있는 거리밖으로 팔레스타인 게릴라를 밀어낸뒤에야 협상에 응하겠다는 계산이다.

그때문에 베긴정부는 미국이나 西歐의 강력한 휴전종용에도 공격을 멈추지않고있다. 또 팔레스타인측과의 직접 대면을 계속 거부하면서 레바논정부와 협상하겠다는 방침을 천명해놓고있다.

따라서 레바논을 무대로 시리아、이스라엘간에 지난 5월부터 벌어진 대결을 수습하려 순방外交를벌여온 하비브特使의 노력도 무력화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베긴정부가 이렇게 强攻策을 쓰는것은 장기화한 이란-이라크전쟁을 둘러싸고 아랍권이 分裂되어있고 남부와 국경이 맞닿은 이집트와는 平和조약을 체결、발목을 붙잡아 매놓은 잇점을 최대한 살리려는것이다.

베긴은 레바논공격이 중동전재발로까지 擴大되지는 않을것이라는 전제아래 공격을 멈추지않고 있는것 같다.

팔레스타인 게릴라에 대해서 제한된 報復으로부터 원인제거로 전략을 바꾼것은 베긴수상자신의 시대착오적 신념과 상관이있다고들 보고있다. 베긴은 유태인의 選民의식이 극히 강한 사람이다.

그는 자신의 정책을 聖典을 바탕으로 정당화한다. 6월전쟁에서 강점한 요르단강 西岸의 경우만 하더라도 그곳은 성서에 유태와 사마리아인이 살던 이스라엘땅이므로 오늘날 새이스라엘땅이 되는것은 당연하다는 논리를 고집하고 있다. 그 점령지에 유태인정착촌을 영구적으로 건설해서 아랍의 반발을 사고있다.

그는 2천년도 넘은 과거의 역사를원용해서 오늘날 이스라엘의 安保를주장하고 이를 위해 무리한 예방적 공격을 감행한다.

베긴이 4년전 집권했을때만해도 측근으로 에저·와이즈맨이나 모세·다얀 아론·바라크같은 중도파 인물이있어 정책의균형을 잡을수있었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정치적異見으로 베긴곁을 떠났다.

이스라엘 다바르紙의 유력 컬럼리스트인 에게드씨는 베긴을『폭도(MOB)』라고까지 표현했다. 그는 베긴을 자만·힘의 과시·위협·협잡·진실경멸의 구현체라고 빼진 사람으로 이성보다는 본능에 호소하고 있다고 썼다. 그의 글은 독자들의 호응을얻었다.

그러나 베긴은 이같은 내외의 비난에 눈깜짝하지않고 있다.【金炳武기자】

海外토픽

다리神經대신하는 컴퓨터

美、고양이實驗성공…3년내 사람에도

◇다리를 못쓰는 고양이에게 컴퓨터 회로를연결, 걸을수있게하는 실험에 성공했다. 【外誌】

성냥갑만한 소형컴퓨터가 다리의 마비를 극복해낸다. 미국인 과학자 페트로프스키씨는 한다리를 못쓰는 고양이에 컴퓨터회로를 연결、자유로이 걷게 하는데 성공했다.

그는 3년안으로 소형컴퓨터를 개발해 이를 다리속에 부착、불구자에 광명의 빛을 줄예정이다.

페트로프스키씨는 다리가 마비되는 경우에도 다리근육과 신경은 그대로 보존된다는데서 착상을 얻었다.

다리불구의 대부분은 뇌、하부신경을 연결하는 명령계통이 단절된데서 비롯된다. 이 명령계통의 단절을 다리속에 부착되는 소형컴퓨터가 다시 연결할수 있다는 것이다.【디스커버誌】

皇太子결혼식 不參

★스페인王、신혼여행지不滿

찰즈 영국황태자와 다이애너·스펜서양의결혼식이 1주일앞으로 다가선 가운데 찰즈황태자부부의 신혼여행이 영국과 스페인의 해묵은 외교분쟁을 재연시키고 있다.

찰즈황태자 부부는 오는29일 결혼식을 마친후 2주간의 지중해 신혼여행차 8월1일 지중해 입구의 영국식민지 지브롤터에 도착할 예정인데 지브롤터의 영유권을 주장하고있는 스페인이 찰즈황태자부부의 방문을 영국의「계산된 정치적 행동」으로 간주하고 환·카를로스 국왕이 찰즈황태자 결혼식 참석 초청을 거부한 것.

찰즈황태자는 지브롤터에 약2시간 머물면서 왕실요트 브리타니아號에 승선할 예정인데 스페인정부는 영국측에 찰즈황태자부부가 지중해연안의 다른 스페인항에서 요트에 갈아탈것을 제의했으나 영국이 이를 완강히 거부하자 스페인측은 카를로스 국왕이 당초의 황태자결혼식참석 초청수락을 번복했음을 영국측에 통보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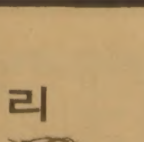
스페인은 지난 2백년동안 지브롤터의 영유권을 주장、이문제로 영국과 불편한 관계를 유지해왔다.

한편 영국정부와 의회는 카를로스 국왕의 결혼식참석 거부에 분노를 나타내면서 찰즈 황태자 부부의 신혼여행은 예정대로 진행될것이라고 밝혔다.【런던·마드리드22日AP=聯合】

오늘의 歷史 <24일>

▲巨儒 宋時烈 死去 (1689)
▲丁未7조약 조인 (1907)
▲초대 正副統領 취임 (1948)
▲탄핵재판소 설치 (1951)
▲美 디트로이트市 사상 최악의 흑인폭동 발생 (1967)
▲경향신문, MBC에 흡수통합 (1974)
▲지탄역서 열차충돌, 160여명 死傷 (1977)

FRANCHISE베이커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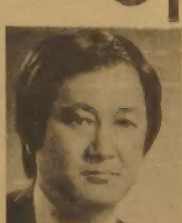


총 투자액 95,000달러
DOWN PAYMENT 40,000달러
융자액 55,000달러
※자신이 없는분에 대해서는 년봉 18,000달러 개런티(한사람일 경우)
(Wife가 같이 일할 경우 8,600달러 추가)
(부부 총계 26,600달러)

문 의 처 : Bread-Man Ltd.
240 Humberline Dr. Rexdale, Ont.
M9W 5X1
전 화 : 416—675—8930(MR. 오)

BREAD-MAN LTD.

이대환 不動産



주택과 사업체에 관한 일체의 문의나 거래는·
REAL ESTATE BROKER
MORTGAGE BROKER 이대환

금주의 새 리스팅
도나스 샵
주매상 $12,000. 렌트 $1200. 리스4년+5년
주매상 $7500. 렌트 $2800. 리스21년 Asking $279,000.
다운페이멘트 $160,000
버라이어티
주매상 $7,200. 렌트 $1120. 리스3년+5년(3베드룸포함)
주매상 $5,500. 렌트 $1,300. 리스2년+5년
주매상 $12,000. 렌트 $1200. 리스4년+5년
DRIVE IN햄버거 SHOP(3주전에 Open)
주매상 $8000. 렌트 $3000. 리스10년. Asking $269.000
다운페이멘트 $80,000(스토아 오픈시간 10시—10시)
일요일 쉬는 백화점안에 있는 Fish & Chip
주매상 $7,000. 리스6년반. 렌트 $2350+Common경비
오픈시간 오전10시—오후9시. 토요일10시—6시.
일요일·공휴일은 문닫음. Asking $250,000
다운페이멘트 $120,000
세일즈맨 신 영 하 R) 423—3114
주소 : 609 BLOOR ST. W.
B) 535—1251. R) 536—4250

時調로 生活을 윤택하게

우리의 魂이담긴 풍성한 情緒
主婦가 앞장서서 다듬어 가야

10년전에 작고한 家兄인 何步 張應斗의 遺稿를 정리하다가 「國民詩歌로서의 時調 —특히 女性에게 보내는 提議—」가 있기에, 간추려서 다음과 같이 소개 드린다.

우리는 하루하루의 어려운 생활에서도, 우리의 훌륭한 전통과 풍성한 정서를 이어받아 우리의 마음자리를 다듬는데 主婦가 앞장서주었으면 하는 마음이다.

그러려면 먼저, 우리가 이어오는 時調를 國民詩歌로서 되살려보자는것이다.

지난날엔 우리시조가 국민가요로서 王에서부터 賤女와 庶民에 이르기까지, 그때그때의 생활과 감정을 시조에 담아왔다. 더러는 외국사람도 우리문화를 칭찬하면서 남의 것을 흉내내지 말고 제것을 알고 찾아서 다시 창조하고 가꿀것을 당부한다. 그중에는 우리의 시조도 例外는 아니어서 그 특성과 定型詩로서의 짜임새를 부러워한다. 아뭏든 부끄러운 일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스스로의 언동의식과 事大思潮를 털어버리고, 한시 바삐 우리의 자존심과 긍지와 主體意識을 되찾아서 그 누구에게도 못지않은 自信과 可能을 향해서 힘쓰기에 게을러서는 안되겠다.

그러면 우리의 시조를 하루하루의 생활에다 어떻게 접근시키느냐 하는 문제겠다. 그것은 먼저 옛시조와 오늘의 시조를 비교하며 많이 읽으면서, 그것을 書藝 공부하듯 꾸준히 옮겨 써 보는것이다. 시조는 字數가 제한되어있어 어렵다고들 하지만, 字數가 제한되어있음으로해서, 그테두리안에 끼어맞추기만 하면되기때문에 오히려 쉬다고도 할수있다.

시조의 字數는 初章의 三、四、四、四字와 中章의 同一함과 末章의 三、五、四、三字만 맞추면되는것이다. 이것이 平時調인데, 여기서、破格이라하여 字數의 變動을 꾀할수있으나, 이것은 다음기회로 미루면서 다음에 그본보기로 두어首 적어본다.

主婦들이 가을날 저녁선것이를 마치고 창앞에 귀여운 자녀들을 데리고 앉아 돋아오는 달을 바라보며

창 앞에 돋는 달이
온달이나 반달이나
○
온달은 금돈이고
반달이면 옥순이지
○
단 속에 깊이 든것은
어머니의 정이라

하고 읊어서、아이들과 함께 웃어보면 情도 새롭게 두터워지리라.

또는 아침 저녁으로 도란도란 마주앉는 상머리에서 응석을 부리는 막내더러

반찬이 쓰나 다나
수철이는 말이 없고
○
네 몫이 많건마는
수심이는 트집이다
○
뒷집의 창식이 보면
박달나면 어쩔꼬

해서 한바탕 웃는것도、애들에게 보내는 정서로나 교육으로나, 응석을 부린데서 국국 재잘하는것보다는, 우리생활에 정신적 여유와윤기를 더한것이다.

(張南子·서울마포구합정동3○○의1)

독자가 만드는 女性페이지

세탁기를 향한 꿈

지리한 장마철을 보내면서 고생스러운점이 한두가지가 아니었다. 특히 아기 기저귀가 쉽게 마르지않아 제일 걱정이었다. 세탁후 맨나중에 뜨거운물에 헹구고 선풍기를 확 틀어놓고 말리려해도 잘마르지 않는다. 유난히도 추웠던 작년 겨울에는 기저귀때문에 이웃집 탈수기를 빌려쓰다시피했는데 이제는 미안해서 더쓸수도없고 세탁기가 있었으면하는 마음만 간절했다. 그러나 아빠한테는 도저히 말이 나오지않는다.

며칠동안 궁리끝에 나는 이웃집 아줌마처럼 보세품스웨터에 수놓는일을 하기로 했다.

한장 수놓는데 50원인데 손만 빠르면 하루에 1천원은 거뜬히 벌수있다는말에 용기를 얻고서 물건을 갖고왔지만 며칠동안은 아빠의 눈치를 봐야만했다.

아빠는 무조건 하지말라는 명령이다. 그래마다 안하겠다고 장롱속에 감추곤 했으나 내가 계속 고집을 부리니 이제는 말리지도않는다. 적은 푼돈이 불어서 커다란 목돈이 되는것인데 50원도 우습게 볼수 없지않은가?

목돈이 되면 세탁기를 사고싶다.

수를 놓으면서 세탁기가 눈에 어린다. 목표를 세워놓으니까 수놓는 손길도한결 가벼워지고 힘도 들지 않는것같다.

【조영미·서울서대문구북가좌1동420의32】

◇개구장이 두녀석 【독자여러분의 사진투고를 기다립니다】 서울 서대문구 홍은2동16의10 9통4반 朴元엄마 찍음.

부끄러운 엄마

여성의 마음

어제는 아이를데리고 시장엘 다녀왔다. 유치원을다니면서 이것저것 묻는것도 많아지고, 이제 물건사는 방법이랑 시장의역할, 또는 상인들의 고마움을일깨워주기 위하여 귀찮기는 하지만 가끔 데리고 다닌다.

돌아오는 길에 껌을 사달라는 아이의 말에 껌을한통 사서 아이와 하나씩먹고, 내가 무심히 휴지를버렸다. 그런데 옆에 오던 아이가 뒤로 돌아서더니 내가 버린 휴지를 주워손에 쥐고 오는것이 아닌가.

자식 앞에서 부끄러워보기는 처음이었다. 말로만『휴지를 길에 버리면안돼』해놓고 내가 먼저 휴지를버렸으며, 길에선 왼쪽으로 걸어야한다고 가르쳐놓고 나는오른쪽으로걷지 않았던가?

아무말도 못하고 아이와함께 집에 오면서 우리 어른들世代에겐 몸에배지않은 공공질서지키기가 아이들世代에서 고쳐지려면 우리 어른들부터말이아닌 행동으로 그들을가르쳐야겠다는 것을 깊이 느낀다. 아이에게서 배운 휴지 한장 줍기! 결코 이다음에는 아이에게 부끄럽지않은 엄마가 돼야지.

【朴吉淑·全州市校洞1가19의5】

지영이의 밥투정

대문을 열고 들어서는 막내아이가 책가방을 내려놓으면서 배가 고프다고 짜증부터 부린다. 도시락에 보리가 너무많고 반찬도 맛이없어 손도 대지않고 가져왔다는 것이다.

바쁜 일이 생겨서 도시락을 소홀히 싸 주었더니 그 모양이다.

몇년전부터 우리집은 철저한 혼식을 해온다. 그래서 쌀에다 잡곡을 섞지 않으면 밥이 싱겁다고들 한만큼 입맛이 변했건만 유독 막내의 식성만은 변하지않아 밥그릇에서 보리쌀이나 콩을 골라낼만큼 투정이 심하다.

저녁을 맛있게 먹고 숙제를 끝낸 아이에게, 나는 낮에 챙겨 두었던 아침신문에서 기아와 질병으로신음하고 있는 아프리카 어린이의 사진을 보여 주었다.

굶주림에 지쳐있는 깡마른 모습들을 들여다 보다 말고 막내는 너무나 불쌍하다면서『우리도 좀 도와주자』고 말했다.

『지영아, 다른나라 어린이들은 이렇게 굶는데 밥투정을 하면 되겠니? 앞으로는 도시락 그냥 가져오지 않겠지?』했더니 지영이는 신문을 보고 느낀바 있었던지『밥이나 반찬 중에서 한가지만 마음에들면 다먹을께…』라고 대답했다. 분명히 우리는 神의 은총속에 살고있다는것을 잊지 말아야하겠다.

【광주시 동구산수1동436의4 (10통1반) 최지영엄마】

나의 이력서

〈題字·윤 치 영〉

윤치영 ②

韓末의 風雲

開化·守舊派대립속 日帝침략 노골화
從兄 尹致昊는 獨立協會회장에 뽑혀

내가 세상에 태어날 무렵(1898) 韓末의 정세는 暗鬱했다。外勢가 이땅에서 利權쟁탈을 벌이고 王朝의 말기적 현상이두드러지면서 國運을 수호하려는 개혁운동과 민족自主의 소리가 높이 일던때였다。

1894년에 일어난 清日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일본은 침략성을점차 드러내면서 이듬해엔 閔妃를 시해하는 乙未事變을 일으켰고 1896년의 俄館播遷뒤엔 러시아세력의 침투가 노골화하면서 이후 日·露가 각축을 벌이게된다。

1876년 일본이 강제한 江華島條約이후 미국、영국、독일등 외국과 문호를 열어온 조선은 高宗이 俄館播遷을 하기까지 20년간 외세의 위협과 간섭을 받으며 國運이風雲속에 흔들린다。이런 외세의 갈등속에 나라안에서는 외국어、선文物을 배워 백성을깨우치고 나라를 일으키자는 開化論과 전통적인 斥邪論이 대립、오랜 갈등을 겪는다。

軍部대신을 지낸 나의伯父(尹雄烈)를 비롯、從兄(尹致昊) 伯兄(尹致旿)등 집안의 선각자들은 開化論의 주창자들이었다。伯父는 신식군대의 領官을맡아 軍의근대화를 꾀하다 兵亂을만나 망명길에 오른다。그 兵亂이 壬午軍亂이다。

壬午軍亂은 고수세력의 反動에 의한것이나 직접적인 원인은 백성을 돌보지않고 가혹한 착취를 했던 閔氏정권에대한 불만때문이었다。

壬午軍亂뒤 清國과 일본의 간섭이 더욱 심해지고 나라의 수모와고초가 그에따라 더한층 심해지자 하루빨리 나라를 근대화시키기위해 서양기술을 도입해야한다는 開化論이 신진관료층에서 크게대두됐다。

그런 풍조속에 1884년 開化派에 의한 甲申政變이 일어나 守舊派를 몰아냈다。민족史家들에 의하면 甲申政變은 과정에서 외세의 개입을 불러오긴 했으나 제도의 民主化、계급타파、稅制개혁을비롯한 內政혁신등 나라와사회의근대화를 목표로 했던 최초의 혁신운동이었다。

나의 伯父는 甲申政變의 새내각에서 刑曹판서였다。그러나 혁신내각은 袁世凱의 清軍과 事大黨의 반격에 의해 三日天下로 끝나고 金玉均、朴泳孝、徐光範、徐載弼 등은 일본으로 망명했다。또 獨立黨인朴泳孝의형 朴泳教와 洪英植은 北關에서 참살되고 나의伯父는능주로귀양갔다。당시牙山에있던 新村본가와 서울 典洞집은 亂家로낙인찍히고아버지、형님등 모든 가족들이 피신을 했다고 한다。金玉均과 특별한 친교가 있던 나의종형 佐翁은上海로 망명했다。

내가 태어나기3、4년전엔 東學烽起、清日전쟁、甲午更張등 근대사의 대사건이일어났고 列強 특히 일본의 경제적 侵奪이 노골화한 시기였다。그러면서 새로운 개혁운동이 아머리를 들고있었다。

1896년들어 독립신문이 나오고 개화파인물들에게 의한 독립협회가 발족됐다。

독립협회의 발족은 자주독립운동、과 자주국권운동을 전개하는 母體가 되었다。

1896년7월 구성된독립협회는 독립정신을 고취시키고 자유、민주주의 개혁사상을외쳤다。1898년8월엔 독립협회의 임원이개편돼 회장에 尹致昊、부회장에 李商在가 뽑히면서 신진세력이 운동을 주도하게됐다。

당시 徐載弼박사는 그의 친구며 나의 從兄인 佐翁에게 독립신문의 국문版과 英文版을 모두 맡아줄것을 당부하며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러시아인들이 나에게1만원에 신문사를 팔라고 요청하고 있소。그러나 나는 신문사를 러시아인에게 파는것보다는 굶는 것이 낫습니다。당신이 신문사의 책임을 인수하게되면 정치나 정치적 인물들을 조심하시오…』

그렇게 말하고 그는 미국으로 떠났다。독립협회는 또萬民共同會를개최해서 최초의 민중운동을 전개해나갔다。萬民共同會는 점차 세력이 커지면서 列強의 제국주의적 야욕을 규탄하고 사대주의에 빠진 정부대신들을 공격했다。당시 4大웅변가로 이름높던 松齋(徐載弼) 佐翁(尹致昊) 月南(李商在) 霽南(李承晩)이 연설을 할때면 西大門밖대는 열광하는 청중들로 人山人海를 이루었다고 한다。

1898년3월、獨立協會가 최초의 역사적 시민대회인 萬民共同會를 鍾路광장에서 개최했다。이 대회에선 국정쇄신에 대한 6개항의 결의문을 채택、조정에 상주했으며 高宗황제는 그 타당성을 인정하는 詔勅을 내렸다。백성들의 환호에장안은 온통 들끓었다。

그러나 그해말 정부의 무력탄압으로 독립협회는 강제해산되고이듬해엔 독립신문도 폐간되면서 亡國의 그림자가 짙게 깔리기 시작한다。

◇朝鮮王朝가 기울어져가던 1890년대 서울南大門모습。

제12기 名人戰 挑戰5番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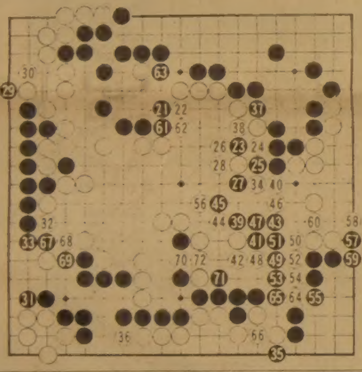
第3局 第8譜 121~172 (각5시간 덤5집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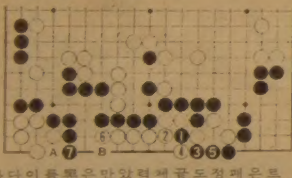
白(挑戰者) 徐奉洙<1勝1敗>
黑(名 人) 曺薰鉉<1勝1敗>

앞질러 결과부터 밝히면 이 바둑은 黑이 盤面으로 10집、덤5집반을 공제하고 4집반을 승리했다。모처럼에써 쌓은 白의 중앙 大家를 파괴 당한 후에도 그중앙을 한사코 확보하려고 동분서주하는동안 黑의절묘한 끝내기에 말려들어 버렸던 것이다。

黑21에서 개시된 끝내기수법은 33까지、전문기사들은 필연의 과정이라 하지만 곁에서보면 마치 曺山流水、맵시있는 손매와 다를바 없었다。

특히黑35는 자체의 크기보다 두터운 복선이 깔려있어 얄미울정도。白으로 하여금 36이 불가피하게 한데에 묘미가있다。白36을 태만했다가 한고도처럼 黑1、3을 당하는날이면 이하7로서 다음黑「A」와「B」를맞아 좌우양쪽白 중의 하나가 횡사하는 것이다。





曺名人 4 집반勝

이에이르러 白은 이미 패국을인정하고서도 오직 끝내기자체에 정력을 쏟았다。다만 白66은 실상 黑69자리를잇는것이 정수이다。그러나黑이白70자리를 이어서 승부차는축소되지만 그저그뿐。白72로서 큰끝내기는없어지고 나머지는 승부에 무관하여 총보로 미루거니와 여하간도전자로서는 만부득이한 패배라 할바에없다。【一凡】

趙治勳9단 자서전「목숨을…」번역출간

지난16일 本因坊位마저 탈취、2冠王의 位에오른 趙治勳9단의 자서전「목숨을 걸고 둔다」가 번역돼나왔다。

「목숨을걸고 둔다」는 제1장 名人에의 道程、제2장 나의바둑、제3장 나의결혼、제4장 기사라즈(木更津)의 나날들등 4개章으로 나누어 중간중간에 그의대표적인 棋譜를 함께 싣고있다。(사진)

또한 後記엔 趙9단이 자신을 뒷바라지해준 趙祥衍5단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글로 적고있다。【民瑞出版社刊·2백15페이지·값2천원】

바둑소식

河燦錫등 3棋士 名人戰 본선진출

제13기 名人戰 본선리그에 진출한 기사로 河燦錫7단、姜哲民6단、鄭壽鉉4단등 3명이 확정됐다。

이들 기사들은 지난12기의 시드잔류기사 徐奉洙7단、徐能旭6단、張秀英5단、姜勳4단등과 함께 앞으로1년동안 풀리그를 벌여 曺薰鉉名人에 도전할 기사를결정하게된다。

그런데 지난21일 벌어진名人戰 본선제1국 徐能旭6단대 姜勳4단의 대결에서는 姜4단이 執黑으로 6호반승을 거두었다。

曺薰鉉·徐奉洙대결 棋王戰타이틀 놓고

曺薰鉉8단과 徐奉洙7단이 棋王戰타이틀을 놓고 또다시 격돌한다。

徐7단은 지난16일 거행된 棋王戰본선제21국 徐能旭6단과의 대결에서 2백88수만에 黑9호반승을 거둠으로써 리그전적6전전승으로 曺薰鉉棋王에 도전할티켓을따냈다。

두 맞수의 대결은 棋界에 새로운 스타가 등장하지않는 한 당분간 계속될 전망인데 현재의 바둑계의 상황으로보아 비관적이라는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한국일보 詩壇

祈禱

車映翰

나의 잃은귀와 눈을 다시 찾게하여 마
음안에 빛이 자라게 하여 주십시오 빛은
길을 열게하여 주시고 길따라 뜨거운 눈
웃음 보게 하여 주십시오

땀방울에서 소금이 항상 빛나게 하여
맑은 하늘아래 뜻으로 나부끼게 하여 주
십시오 그리하여 다시 만나게 하여 돌아
오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비로 하여금
높고 깊은 산과 골짜기를 만들어 가는곳
마다 물소리를 듣게 하여 주시시오

강물이 흘러오는 들에서 새들과함께 날
으게 하여주시고 열매를 문 새의 입에서
나의 손에 씨앗을 쥐게하여 땅을 향해 휘
뿌리게 하여 주십시오。하여、뜨거운 어
머님의 가슴에 품어 움트게하여 아버님의
발끝으로 다져지는 뿌리를 내리게 하여
모두 함께 확신하는 향기를 뿜도록 하여
아침과 저녁의 기약을 헹구어 식탁위에서
꽃피우게 하여 주시시오。

한국기원

영업시간 : 1시~11시
653A BLOOR ST. W.
☎ : 533-0168
부설 : 고려전자침

모든 종이 위의 生

趙善作 作 禹慶熙 畵 <156>

그림자 놀이 65

이불 자락이 덮여진 부분의 방바닥온도는 매우 뜨거웠다。아니、처음부터 내 피부가 그런 열기를 감지한 것은 아니었다。두 시간 이상 밖의 냉기와 싸운 내피부는 처음 얼마동안 마비의 상태에 있었다。표피의 냉기가 도리어 뻿속깊이 스며 들면서 시린 느낌까지 주었었는데、차차 녹아들면서 감각을 되찾았던 것이다。

그러나 구들의 열기를 받아들이는 내 피부가 정상적인 감각을 회복한 것은 아니었다。일단 빙점(氷點)가까이 떨어졌던 피부와 피하지방에 느닷없이 닥쳐온 열기는 내 감각을 고삐가 풀린 망아지처럼 풀어 놓았을 뿐이었다。발가락들은 에리고 종아리와 대퇴부는 화끈거렸다。추위와는 또 다른 싸움이었다。그러나 나는 잠자코 고삐가 풀린 감각들을 견뎠다。얼었던 뺨도 마침내는 화끈 거리기 시작했는데、그때쯤 나는 수마(睡魔)와도 싸우지 않으면 안 되었다。

설핏 잠이 들었는가 싶다가 깨어나기를 몇차례 되풀이하고 나서、이래서는 안 되지、하는 느낌으로 나는 상체를 일으켰다。그와 나란히 눕는다는 마지막 과업을 이루기 전에 허무하게 잠들수는 없는 일이었다。

어둠 속에서 나는 그의 누운자세를 어림했다。그의 머리는 출입문 쪽이었다。술병이 그의 머리로부터 팔 하나 뻗으면 닿을곳에 놓여있었다。그의 몸은 나를 향해 길게 놓여져 있었으며、벽의 반대쪽을 향하고 있는 듯했다。그와 벽 사이에는 얼마쯤의 여분이 있었고、내 몸을 그곳에 끼우는데는 그리 큰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것 같았다。

이제는 반란을일으켰던 내 피부의 감각들이 점차 평정을 되찾기 시작했다。그의발치에 쪼그리고 앉은 채 나는 나머지의 옷들을 내 몸에서 제거했다。슬리프를벗고또서너 가지의 속옷을 벗자 나는 알몸이 되었다。그것은 내가 진작부터 생각해왔던 하나의 숙제였다。그의 옆에 나란히 눕겠다는 생각을 해낸 처음에는 물론 나체가 되는 망칙한 일에관해서 생각하지않았었다。그의 옆에 나란히 눕는 일만으로도 충분히그에게 놀라움을 줄수있으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그런데유섬 온천에서의 실패를 경험한 나에게 이제 그의옆에 나란히 눕는 일만으로는 아무런 새로움도 없었던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도 깨어나서 이제는 놀라지 않을것이며、내 행위는 성격적 집요성 이상으로 그를 감동시키지 않을 것이다。이런 조바심에도 불구하고 나는、그래도 막상 그의 옆에 이르면 알몸이 될 수는 없을것이라고 체념해왔었다。그가 벗겨주기 전에는、예전에도 그렇게 했던것처럼 그가 벗겨주기전에는 결코 알몸이 될수없을것이라는 패배적인 생각을 그가 이제는 그렇게 하지않을는지도 모른다는 조바심과 함께 되씹어 왔던것이다。그런데 나는 마치 그런 무거운 조바심들을 벗어내듯이 알몸이된 것이다。

나체가 되자 나는 도리어 날아갈듯한 가벼운 느낌이었다。그런 느낌으로 나는 두더지가 땅을파듯 그의발치부터 이불을들추고 옮겨가 그와 아랫목벽 사이의 공간에 몸을 끼웠다。

야차(夜叉)처럼 자꾸만 얼굴에 엉겨붙던 수마는 잠깐 달아난 듯한 느낌이었다。또 하나의 벽처럼 막아선그의 우람한 등이 조금 움찔거리는 듯하더니 곧 잠잠해졌다。잠시 후、나는 그의 등에 손을 가져가보았다。후텁지근하게 습기가 밴 부드러운 천의 잠옷이 그의 체온을 전하며 만져졌다。아마 자면서 땀을 흘린 모양이었다。내가 창문을 넘어 나체로 그의 옆에 눕기까지 그는 악몽을 꾼 모양이었다。나는 갑작스럽게 그의 악몽까지도 사랑스런 느낌이었다。비밀히 도모하던 일을 이루게 되리라。어둠 속에서 나는 가만히 웃었다。

YMCA여름학교 제3,4학기 학생모집

여름은 어린이들이 자기가 즐길 수 있는 활동을 하며 보람있고 성장하는 세절이어야 합니다. 한국어린이들이 한국친구를 사귀고 추억에 남는 여름방학이 되게하기위해 YMCA에서는 금년에도 작년과 같은 Day Camp스타일의 여름학교를 가집니다. 늦기전에 신청하십시오.

교사진 : 김진수, 에스터·김, 김정숙, 조인숙, 이정희, 권혁길, 이진화, 김창렬, 정호영, 정미선, 김영훈.

※스쿨버스가 2대, 동부, 서부(스카보로와 미시사가 일부포함)

※금요일마다 여행이나 피크닠을 가짐.

때 : * 제3학기 : 7월27일~8월7일
* 제4학기 : 8월10일~8월21일

장 소 : WINONA고등학교(101 Winona Dr.) (St. Clair×크리스티 부근)

과 목 : 한글·무용·피아노·바이올린·미술·수영·태권도·노래·여행·짐네스틱(피아노와 바이올린은 개인지도)

등록금 : 1학기 50달러(2인이상은 할인), 버스비 별도

토론토YMCA
15 ROBINA AVE. 536-1166

在外동포 千5百여명 招請

「국군의날」맞아 祖國의 참모습 보여줘

反政府人士도 入國허용

全대통령 訪美공약實現、建國후 최대규모

정부는 오는10월1일「국군의날」을맞아 在外동포 1천5백50여명을 초청、제5공화국출범이후의 조국의 참모습과 국군의 발전상을 직접보여주기로 했다.

단일규모로는 建國이래 최대규모가되는 이번 在外同胞들의 본국초청은 在外동포들의 疏外感을 덜어주고 특히 지난2일 全斗煥 대통령이 訪美때 公約한 在外反정부·反體制인사들에대한 포용과 새時代건설에의 참여가능성을 提高시키는 계기가 될것으로 풀이되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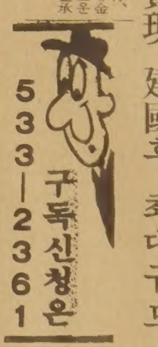
외무부관계자는 23일「국군의날」행사에 초청될 在外동포의 분포와 정확한 인원을 점검하기위해 日本、美洲、歐洲등지의 동포들로부터 일시 귀국희망자들의 신청을접수한 결과 1천6백여명으로부터 사전신청을 받았다고 밝히고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이들에게 초청장을 보낼 방침이라고 말했다.

초청대상자는 교포사회의 지도급인사와 장기해외체류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본인이 희망했을 경우 해외에서 反정부활동을 벌였던 인사들도기꺼이入國을허용키로했다고 이당국자는 밝혔다.

韓日의원聯 常委 正副위원장發表

韓日의원연맹은 23일 각상임위및 특별위원회 正副위원장을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괄호안은 부위원장)

▲외교안보위=柳根恒(李世基、鄭鎭吉)▲경제위=鄭在哲(朴在鴻、趙炳鳳)▲사회문화위=朴權欽(李大淳、孫世一)▲法的지위特委=金仕龍(趙正濟、李官炯)▲운영위=金潤煥(尹碩淳、金承穆、李聖秀)



구독신청은 533-2361

債務者찾아 渡美…납치극

暴力輩고용 拳銃위협監禁… 몸값요구

뉴욕警察、교포등3명체포·1명手配

【뉴욕支社22日=崔昇模기자】뉴욕경찰은 21일 서울출신교포 權五春씨(39·서울建陽인터내셔널대표)와 미국거주 南일(25·뉴욕엘퍼스트애비뉴거주)、조한섭씨(20·뉴욕맨크리크스트리트51의55)등 3명을 납치혐의로체포하고 다른한국인1명(신원확인)을 같은혐의로 수배했다.

경찰에의하면 權씨는 서울에서 떼인 돈을 찾기위해 지난주 미국까지 추적、현지동포사회의 폭력배인 南씨등4명을 고용했으며 南씨등일당은 지난20일 채무자인 강선우씨(34·뉴욕거주)등을권총으로 위협、납치한후 강씨의 사촌에게 전화를 걸어 權씨에게 6만달러(약4천2백만원)를 몸값으로 요구했다가 붙잡혔다.

납치범일당은 지난20일상오7시30분께(현지시간) 뉴욕시퀸즈블로의 색슨하이트91스트리트33의45아파트5A소재 집을 나서는 강씨를 납치한뒤 멀지않은 퀸즈블리바드에있는 메트모텔방에 가뒀다.

범인들은 강씨가『돈이없다』고 하자 이날하오 강씨를 다시 맨해턴 애비뉴31가에있는 사우드게이트호텔로 옮겨 협박을 계속했는데 10시간이상 시달리다 지친 강씨가 하오5시30분께 뉴욕에사는 사촌동생에게 돈을 가져오도록 전화연락을 했다는것.

납치범들의 연락을받은 강씨의 사촌및 친척들은 강씨의 생존을 확인하지않고는몸값을 지불할수없다고 주장、범인들로부터 강씨를 대면시켜주겠다는 동의를 얻었으며 뉴욕한국총영사관이 있는 파크애비뉴 460건물 앞에서 돈과 강씨의 신병을 맞바꾸기로했다.

한편 강씨가족들의 신고를받은 뉴욕 경찰서의 토머스·메유형사반장이 지휘하는 사복경찰10여명은 대면약속장소에 잠복했다가 이날하오 0시30분께 범인들이 강씨와함께 나타나자 현장을덮쳐 범인3명을 체포하는데 성공했다.

체포된 납치범일당은 퀸즈형사법원에 이첩돼 21일하오 2시부터 적부심사에 들어갔는데 법원은 南씨에게 5천달러、조씨에게 1만달러、權씨에게는 5만달러의 보석금을 부과、24일까지 납부하면 보석해주기로 했다.

韓人끼리犯罪 한탕후「번개出國」

한탕하고 해외로 튀고 뒤쫓아 추적해 인질극을벌인 이번사건은 국제화시대가 가속할 수록 빈번하게될 도피성범죄의 전형이다.

이번사건에만 국한해보면 국내에서 부정하게 큰돈을 벌어 해외로튀는 이른바「번개출국」이 가능하게돼있고 韓美간에 범인인도협정이 없어 현행법으로 우리경찰은 속수무책이라는 사실이 악용된 전형적인 케이스였다.

韓·美간의 범인인도협정을 체결、뛰어봐야 결국 잡혀온다는 인식을 일반에 심어줘야겠고 미국외에다른나라들과도 이같은 협정을 확대해 국제적인 범죄에 대처해야한다는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준 사건이다.

장마가고 10日만에 4저수지 말라붙어

【浦項=聯】장마가 끝난지 10여일밖에 안됐는데도 경북 迎日郡관내 4개저수지가 말라붙어 농민들이 애태우고 있다.

23일 迎日郡 농지개량조합에따르면 관내저수지 25개중 淸河面古縣저수지(담수량47만톤)를 비롯한 4개저수지가 지난13일께부터 바닥이 드러나 농민들이 양수작업을 펴는등 비상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는것。

이밖에도 크고작은 대부분의 저수지와 소류지의 담수량도 평균 40%를 밑돌고 있어 농민들이 다른지역과는 달리 한해대책에 부심하고 있다.

솔잎혹파리 극성 在來松80% 重症

【南原=聯】국립공원 智異山의 전북南原郡쪽 산록의재래종 소나무 대부분이 솔잎혹파리 피해를 입고있으며 이중 80%는 중증으로 고사할 가능성이 있다.

22일 南原郡당국 조사에 따르면 관내 智異山 임야 4만6천ha의 55%를 차지하고있는 재래종 소나무 2만5천ha 전체가 솔잎혹파리 피해를 입고있으며 이중 2만여ha는 중증이상의 피해목으로 베어내야할 형편이다.

지역금고에 誠金갹출

職場마을金庫 결손액 보충위해

【大邱=聯】마을금고 연합회 경북지부가 대기업의 직장마을금고에서 경리부정등으로 발생한 자산결손분을 보충해주기위해 지역마을금고로부터 성금을 거두어들이고있어 말썽을 빚고있다.

23일 지역금고들에 따르면 마을금고연합회는 大農大邱공장과 무림제지등 2개기업체의 직장마을금고에서 인출한도초과와 부실보증등으로 발생한 8천만원의 결손금을 보조해주기위해 지난달25일 산하 2백38개지역금고에 공문을 보내 불우회원금고돕기 사업이란 명목으로 5천2백50만원을 할당했다는것.

이에따라 大邱시내 1백10개 마을금고는 자산규모를 기준으로 5만원~55만원씩의 성금액을 할당받았다.

詩와 함께 이 여름을…

바닷가 곳곳에서 詩人과 讀者의 캠프

바닷가에서 시인들의「즐거운 여름 캠프」가 베풀어진다。現代詩人協會는 27일~29일 釜山에서、韓國詩人協會와 月刊「心象」사는 8월8일~11일 江陵 竹島에서、巡禮文學會는 27일~30일 東海 화진포에서 詩人잔치를 편다。시인들의 여름캠프는 사방이 환하게 트인 바닷가에서 거칠것없는 파도소리와 바람소리 가운데 묻혀 詩를 노래하고 詩의 순수성을 높이켜 보는 즐거운문학행사。

제3期「해변시인학교」8일 江陵서

現代詩協 27일 釜山…百여詩人참가

海風에 메아리질「靈魂의言語」

◇한국시인협회가 지난여름 만리포에서열었던 해변시인학교。밤바다를 바라보며 모래톱에 둘러앉아 물래시빛에 의지해서 시낭독을하고있다。

「감동이 있는 詩」위한 自省의 기회로

韓國詩人協會와「心象」사가함께 마련하는「해변시인학교」는 올여름으로제3期를 기록하는 이번 3期는「詩와함께 생활을」을 주제로、71명의 시인과 1백30여명의 독자들이 참가하는 매머드·서머·캠프가 된다。해변시인학교의교장은시인 黃錦燦씨、지도위원은 鄭漢模、金宗吉、具常、金南祚、金耀燮씨등。

이들 시인들은「나는 왜 생애를 詩에 바쳤는가」「나의 삶속에서 詩가 차지하는 무게」「詩가있는 生活과 詩가없는 生活」「울면서 쓴詩와 웃으면서 쓴詩」「오늘을 쓴詩와 어제를쓴詩」「우리의詩가 젊어져야 하는 우리의 삶의 이야기」등 詩가 스며들어있는 자유롭고 진실된삶의 모습을 그려보인다。이같은 강연이외에 詩人들의 自作詩낭독、독자들의 詩 발표회、해변 백일장、시인과 독자들이 어우러지는 캠프·파이어등의 프로그램이 준비된다。해변학교에 참가하는 독자들은 대학생등 주로 젊은계층의 詩學徒들이며、시인들과함께 竹島해수욕장겸 인구국민학교에서 숙박한다。회비는 숙박비와 식비를 포함해서 1만7천원。

作故文人들의 緣故地나 詩碑가 있는자리를 찾아다니는 巡禮文學同好人들의모임인 巡禮文學會는가족을동반、50여명이 참가하게 된다。이캠프에는 李家源、咸東鮮、李根培씨등 3명의 詩人들이 초대돼 朝鮮朝詩人들과現代詩壇에대한개괄적인이야기를나누게된다。

現代詩人協會는「現代詩의 나아갈길」을 주제로、1백여명의 시인들이 모여 시낭독회및 현대시가 안고있는 難點과 현대시가 앞으로 취해야할 길을 짚어보는 강연과 토의를 마련한다。모임에서는 시인 姜南周씨(釜山水産大교수)가 현대시가 마주하고있는 문젯점을 제기하는 강연에서『요즈음의 詩는 우리를 짓게하는 감동이없다』고 지적해서 논란을 이끈다。

◇姜南周씨

姜씨는『최근 수개월간 어떤작업상의 이유로 매달 거의 3백편에 가까운 詩作品을읽었다』고 밝히고、『그렇게 매달 수백편의詩作品을 읽으면서、한 시인으로서 또한 독자로서 매우 심각한 고민과갈등에 빠지고있다』고 말한다。그이유로『詩의 대부분이 감동이나 감흥을 주지못했기때문』이라고 설명한 그는『시인이 시를읽으면서 감동을 받지못할때、독자가 수백편의 詩를 써도 감동없는 詩를 쓴다면 하늘아래 간(시인)에게 주신영혼의 언어를 잃어버리게될것이며、詩는 영원히 시인과 독자를 떠나 사라져 버릴것』이라고 우려한다。현대시인협회의 이모임에 참가하는 시인들은 유드·호스텔에서 머물며、지난 해여름읽고 감동받기를 바라는것은 더욱 어려운일』이라고 말한다。모든 훌륭한 예술작품은 보고듣는 이의 정서를 感動케하는 속성이 있다고 말해진다。詩도 어떤 형태로든 독자들의 마음을 울려줄수있을때 비로소 그만큼 우수하고훌륭한 작품으로떠받쳐질수있다。

姜씨는『독자의 마음을 진히 울려 주지 못하는 詩、독자들을 감동시키지 못하는 詩는 존재하지 않아도 좋을 작품』이라고 날카롭게 지적하고、『우리詩가 앞으로 참아가야 할 길은 무엇보다도 감동적인 요소를 회복하는 일』이라고 강조한다。마치 종교와도 같이 心靈의 세계에 작용할 수 있는詩 가슴속까지 스며들어 우리를 전율케 하는 詩、우리의체험을 확충시켜 우리의 삶을 풍성케하는 詩、우리를 끝없이 나약케 하며 그 위에 황제처럼 도도히 군림할 만한 힘찬 詩、기도하는 자의 새벽에 닭울음으로 오는 詩처럼 진실하고 신비롭고 신선한 감동으로 가슴에 육박해 오는 작품이 창작돼 나와야 한다。이렇게 詩가 사회의 한 구석에서나마 감동을 살리고 부풀려 갈 때、나날이 감동과 감흥이 사라져가는 현대 사회의 비극을 다소 누그러 뜨릴수 있다。

姜씨는『시인이 감동회복에 노력을 쏟지않아、수 ...

이밖에 西海岸 바닷가에서 어학교를 연 데이어 4회를 기록한다。이같은 시인들의 여름캠프는 각자 마음이맞는 詩友끼리만나 영혼의 순수성과 原始性을 간직한 바닷가에 모여서 詩의참된길을 모의하고、진실한 삶의 길을 모색하고 인간의 純粹性을 옹호하는 다정한 자리로서 아낌을받고있다。【禹桂淑기자】

國際 청년 野營대회

潭陽 聖岩캠프 13國 116名參加

【光州=聯】「오늘 함께 내일을 모두 미래로」를 주제로 한 제16차 국제청년야영대회가 22일 하오4시 전남潭陽郡 水北面大舫里소재 聖岩캠프장에서 개회식을갖고 오는 31일까지 10일간의 캠핑에 들어갔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주최하는 이번대회에는 한국의 50명을 비롯 西獨(26명) 日本(14명)등 모두 13개국에서 1백16명의 대학생과 청년들이 참가、하루 5시간씩 聖岩캠프장내 노천극장의 기초정지작업을 하며 국제간의 이해증진과 친선을 다진다。

이들은 야영대회기간중 23~25일 국제야영의 밤、26일 가면무도회、27일 촌극경연대회、28일 외국어경연대회、29일 주민위안의밤등을 열게된다。

...기지 시설확장으로 어획고가 2.7배로 증가했다。주택개량과 도로신설은 모두 5천80棟이 개량됐고 도로 32㎞가 신설됐으며 TV보급률도 25%에서 55%、신문보급률이 17%에서 22%로 각각 늘어 문화복지수준도 크게향상됐다。내무부는 이같은성과에따라 도서·낙도 종합개발계획 제1차연도인 81년~85년사이에전기、급수、교통등 전도서민의 3대기본숙제를 완전히 해결하고 섬의부존자원을 체계적으로 개발、소득을 올리기로했다。우리나라의섬은 모두 3천4백44개로 유인도가 5백16개인데 11만6천2백41가구에 56만3천4백73명이 살고있다。

日、고립가능성높아

아시아서 役割不在

홍콩誌보도

【홍콩16日=聯】레이건미행정부의 새로운 對아시아정책과함께 全斗煥 대통령의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순방을 중심으로한 최근의 사태발전으로 말미암아 정치관측통들은 일본이 앞으로 어디로 갈것이며 아시아를 위해 무슨 역할을 해야할것인가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홍콩에서 발간되는 영자주간 파·이스턴·이코노믹·리뷰지 최신호가 말했다.

이 주간지는 일본이 최근의 경제변화로 인해 아시아에서 외교적고립상태에 빠졌다고 전망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전제한뒤 그러나▲全대통령의 전략적인 아세안순방 ▲레이건미행정부의 對아시아관심고조 ▲미국의 태평양군사력증강에 대한 호주의 지지등 최근 아시아의 사태발전은 아시아의 지정학...

油槽船爆發

2명죽고 10명다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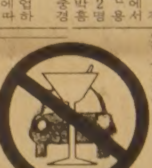
巨濟 造船所

【忠武=聯】22일하오3시20분께 경남거제군사등면 성포리 성포조선소 도크에서 건조중인 유조선 81대덕호에서 가스가 폭발、작업중이던 용접공 신영훈씨(32)등 2명이 숨지고 같은 용접공 박홍근씨(21)등 10여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이유조선 안쪽에서 작업하던 배관공 이종섭씨(33)에따르면 갑자기 꽝하는 소리에 놀라 유조선 귀쪽으로 가보니 신씨등 4명이 쓰러져있어 인근적십자 병원으로 옮겼으나 신씨는 숨졌다는것이다。

이사고로 중상을입은 박씨등 3명은 마산에서、나머지 부상자들은 성포 보건지소에서 각각 치료를받고있다。

경찰은 건조중인 이유조선 뒤부분의 기관실에 차있던 가스가 폭발한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중이다。1천2백톤인이유조선은 작년초부터 이조선소에서 건조중인데 현재 90%의 공정을 마치고 마무리작업중에있다。



例年에 비해 參加수준·意慾 높아진셈

...척 현실에대한 미통령국간의 공통적 정세인식의 확대와일본역할의 두드러진 부재라는 2개의 공통요소를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민국 演劇·무용祭 참가 단체 確定발표

演劇…「극단뿌리」등8개극단

무용…「한국남성」등9개단체

◇참가극단과 무용단의 수준과 의욕이높아 어느해보다도 관심을 불러일으키고있는 연극제와 무용제。사진은 작년무용제 출품작인「살풀이80」。

연극계와 무용계의 최대행사인 한국문예진흥원주최 제5회 대한민국연극제와 제3회 대한민국무용제의 참가극단과 참가무용단이 확정 발표되었다。연극은 참가신청을 낸28개극단중 8개극단을、무용은 12개무용단체중 한국무용5개、현대무용3개、발레1개단체등 총9개단체를 각각 선정했다。확정된 극단과 무용단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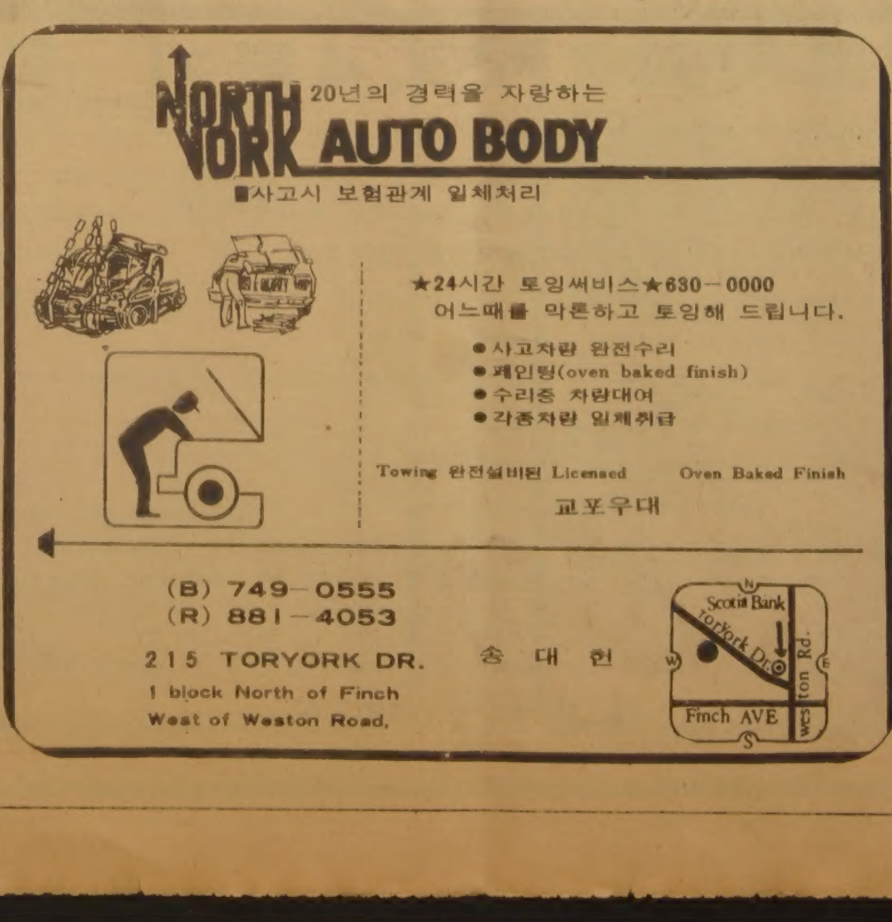
연극 ▲극단뿌리=金道勳연출「밤의묵시록」▲극단四季=최명희作 허환 연출「길몽」▲극단광장=李載賢작 김효경연출「미국에 산다」▲극단실험=李文烈작 尹浩鎭연출「들소」▲극단에저또=尹朝炳작 方泰守연출「농토」▲극단自由=李康白작 金正鈺연출「족보」▲극단 東朗=吳泰錫작 김기주연출「自122년」▲극단 평凡錫작 姜田韻연출「하이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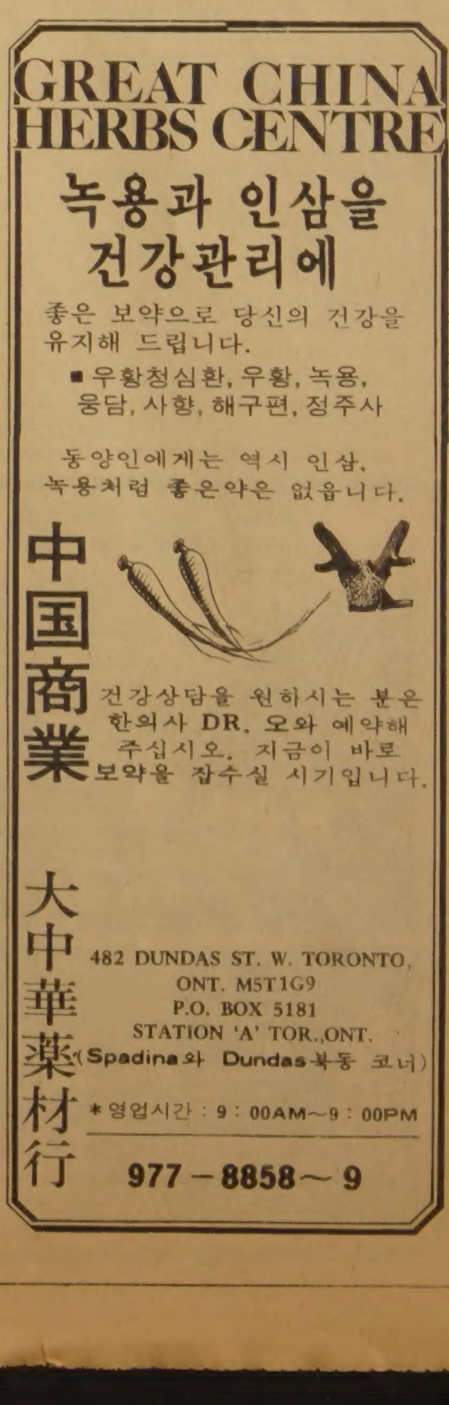
무용 ▲鄭在晩무용단=鄭在晩안무「사랑일레라」▲金福姬、金和淑무용단=金福姬、金和淑안무「거리굿」(以上한국무용)▲한국컨템퍼러리 무용단=金基仁안무「3월의 여행」▲李丁姬무용단=李丁姬안무「살풀이-2」(以上현대무용)▲조승미발레단=조승미안무「꿈」

참가극단과 참가무용단의 선정은 연극은 李海浪、林英雄、韓相喆씨가、무용은 洪貞禧、安濟承、宋范、鄭昞浩、李盾烈씨가 맡았다。

선정이 확정된 직후 연극운영위원들은『예년에 비해 작품수준이 고르고 향상되었다。극단선정은 제출된 작품대본과 공연극단의 역량、연출자의 개성의 조화에 비중을 두었다』고 말했다。

1일부터 열흘간 문예회관 대극장과 소극장에서、대한민국무용제는 오는 10월13일~22일까지 문예회관 대극장과 소극장에서 각각 열린다。구체적인 공연일정과 일시는 13일(연극)、21일(무용) 문예진흥원에서 결정된다。





철길 걸으면 모두 即決에

교통부 鐵道法 개정法律案마련、閣議에

피해자 過失땐 機關士 처벌안해

列車투석 鐵路에 물건放置 嚴罰

罰則은 종전보다 가볍게、단속은 폭넓게

철길을 무단횡단하거나 철로를 따라 걷는 사람은 앞으로 모두 즉결심판에 넘겨져 구류나 과료처벌을 받게된다. 또 철도종사원이 직무규정을 위반하는경우 처벌을 강화하는한편 열차운전자 처벌은 특례조항을두어 신축성을 부여, 철로무단통행, 철도건널목 우선멈춤 불이행등 피해자 일방과실로 사고가 일어났을 때에는 기관사는 처벌하지않고 그대신 안전운행과 관련된 법규를 어겼을 때에만 처벌토록했다.

교통부는 23일 이같은내용을 주요골자로한 철도법중 개정법률안을 마련, 국무회의에넘겼다.

현행법규에따르면 구류는 29일이하, 과료는 2만원 이하다.

철도법중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현행철도법(86조)은 철도선로 무단통행자에 대해 1년이하의 징역 또는2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엄벌규정을 두고있어 오히려 단속의 실효를 거두지못하고있기때문에 처벌을 조금가볍게 현실화하는대신 무단통행자는 모두 철저하게 단속키로 했다는것이다.

작년 한햇동안 철로무단보행으로 적발된자는 전국에서 모두 22만여명에달했으나 실제 형사입건된자는 1백10명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대부분 훈방됐다.

이 개정안은 또 철도선로에 인접한 금지구역내에서의 ▲토목채취및 ▲방목 ▲달리는 열차에 돌을 던지는 행위 ▲열차승객이 열차운행중에 타고 내리는 경우에는 현행보다 벌금을 무겁게 매기고 ▲철도선로에 물건을방치해 열차운행에 지장을 일으키게한 자에 대해서는 징역에처하는 벌칙조항도 신설했다.

보행자 과실事故 작년에 1千58件

한편 철도선로 보행자과실로인한 사고는 작년한해동안 1천58건이 발생, 1천1백94명의사상자를냈고 금년1월부터 6월말까지는 4백8건이발생, 4백70명의사상자를냈다.

海洋훈련학생 溺死 구조하려던 敎師도

【洪城=聯】23일상오6시30분쯤 충남瑞山郡 所達面義項 千里浦해수욕장에서 해양훈련왔던 天安高2학년 임현수군(17)이 파도에 밀려 떠내려가는것을 인솔교사 金靈成씨(44)가 구하려고 들어갔다가 2명이 모두 익사했다.

이날 사고는 상오6시께 해양훈련을 온 학생40명과 지도교사 4명이 아침구보를 한뒤 땀을 식히기위해 물에 뛰어들었던 임군이 허우적거리며 파도에 50m쯤 밀려나가자 이를 구하려고 金교사가 바다에 뛰어들었다 같이 변을당했다.

靈岩 바닷가에 소녀 토막變屍

【光州=聯】지난17일하오7시께 전남靈岩郡三湖面龍塘里앞 해변에서 발견된40대여인의 토막시체는 15세가량의 소녀변시체로 22일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결과 밝혀졌는데 양쪽다리등의 살갗만 떨어져 나갔으며 칼자국을 전혀 찾아볼수 없어 이 변시체가 6개월전부터 물위에 떠다니다 부패된 것으로 추정됐다. 전남도경은 이에따라 지난 18일부터 龍塘지서에설치했던 수사본부를 이날 해체하고 이소녀의 신원을 전국에 수배했다.

가스통 爆發 20명 重輕傷

家屋4채파손 유리창박살 대피소동 富川서

【仁川=聯】23일 상오7시40분께 경기도富川市內洞3의 2의3 화남가스상사에서 산소용접용 아세틸렌가스통이 폭발, 종업원 李한영씨(28)와 부영금속공원 金수일씨(23)등 인근주민 20여명이 중경상을입고 富川현대병원·한일병원·성요셉병원·제일병원등에 분산 입원가료중이다.

이 폭발사고로 화남가스상사 이웃에있는 가옥4동이 완파 또는 반파되고 주변 가옥및 공장유리창 1백여장이깨져 주민들이 한때 대피하는 소동을 벌였다.

사고현장 바로옆에 사는 殷옥인씨(39)에 따르면 『아침6시40분께 별안간 꽝하는 폭음이나 뛰어나가보니 날아온 유리파편에 허리를맞아 다쳤다』는것.

한편 경찰은 23일 종업원 李한영씨(28)가 아침일찍 가게옆에 있는 아세틸렌가스통과 산소통을 넣어두는 창고에 들어가 담배불을 붙이기 위해 성냥을 켜는 순간일어난것으로 밝혀내고 李씨를 업무상 과실치상혐의로 입건했다.

業者가장 賂物주고 喝取

"下水道공사달라"公務員에 돈줘

가짜會社명함 갖고 접근

서울지검 東部지청 수사과는 13일 구청직원들에게 하수도공사를 하청받게 해달라고 뇌물을준뒤 이를 폭로하겠다고 협박, 1천2백30여만원을 갈취한 金基成씨(49·무직·서울恩平區北加佐2洞336의7)를 뇌물공여 및 공갈등 혐의로구속했다.

검찰은 또 金씨로부터 금품을받은 城東구청 전토목계장 徐洪錫씨(35)를 뇌물수수혐의로 입건하고 城東구청 전 하수계장 全榮一(38)、西大門구청 전 토목계장 朴性勳(39)、城東구청 전토목과장 崔相運씨(39)등 3명에 대해서도 같은혐의로 수사를 펴고있다.

구속된 金은 지난해 8월부터 유풍공영 주식회사 상무라는 가짜명함을 갖고다니며 徐씨에게 하수도 준설공사를 하청받게 해달라고 금두꺼비 한개(싯가25만원)와 현금 1백만원을 준것을비롯 全씨와 朴씨등 2명에게도 각각 30만원과 1백25만원을 주었다는 것.

그뒤 金은 이를 미끼로 지난해9월이후 徐씨에게서 3백17만원, 全씨에게서 60만원, 朴씨에게서 6백25만원을 뜯어냈고 崔씨에게서도 금두꺼비 한개와 현금2백30만원을 갈취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金은 계속돈을 요구, 徐씨등 4명은 지난달 6월 모두 사표를 냈다.

연립주택싸고 뇌물 郡직원등 5명구속

서울지검 北部지청 수사과는 23일 연립주택 건축을싸고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경기南楊州 군청지적계장 海源씨(42) 계원 崔榮載씨(31)、東大門구청 수도2과 직원 黃泰泰씨(35)등 공무원3명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혐의로 구속하고 이들에게 뇌물을준 삼화건축사무소 대표 崔興祐씨(36·東大門區面牧洞303의12)와 尹義永씨(43·건축업자·東大門區面牧洞134의2의8)등 2명도 뇌물공여혐의로 구속했다.

崔씨는 경기南楊州郡渼金邑陶農里265에 1천2백평을 연립주택 44세대용대지로 분할해주겠다는 조건으로 지난4월2일과12일 업주 崔씨로부터 98만원을받아 이중 50만원을 계장 姜씨에게 상납했다는 것이다.

미스코리아 金昭馨孃 마닐라 영大會 衣裳賞

미스영·인터내셔널대회의 고유의상상을받은 韓國의 金昭馨양이 22일 상패를 안고 미소짓고있다. 결선은26일열린다. 【22日AP=聯】

地方都市서도 英語회화 붐

學院마다 主婦·직장인몰려 超滿員

TV교재·테이프 불티…바캉스 포기하기도

정부당국에서 회화위주의 영어교육방안이 검토되자 지방도시에서도 많은 대학생과 가정주부·직장인들까지도 대학가와 학원을 찾아 영어회화공부에 열을 올리고있다.

23일 大田시내 2개영어회화학원에는 6백10여명의 수강생이 몰려 지난해 같은기간의 3백30여명에 비해 80%의 높은 증가추세를 나타냈고 忠南大는 지난6일부터 회화반 4백20명을 모집 4주간의 교육에 들어갔고 崇田大대전캠퍼스의 경우 2백40명을 모집 회화공부에 들어갔다.

또 大田시내 忠南여중의경우는 하기방학을 맞아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무료로 영어회화교육을 실시키로하고 23일부터 수강신청을 받고있으며 大田D여고 동창회원10여명은 하기휴가를 포기, 외국인을 초빙하여 회화공부를 시작했다.

한편 대학과 학원에서 정원초과에 밀려 수강을하지못한 학생들은 아침TV방송을 이용, 회화공부를 하고있거나 녹음테이프를 이용, 5·6명씩모여 공부를하고있어 TV영어교재와 녹음테이프가 불티나게 팔리고있다.

이같이 예년에 보기드문 영어회화붐이 일고있는데 대해 忠南도 교위의 한간부는 『회화위주의 영어교육개편에 따른 학부모들의 심리적부담과 해외취업의 확대, 대학생 해외연수 증가등의 요인때문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大田=聯】

韓人가게 放火기도

美國人 야채상, 競爭者 없애려 美볼티모어서

【볼티모어22日AP=聯】 美볼티모어 형사법원 大陪審部는 22日 한국인경쟁자들의 상점에 방화를 기도했다는 혐의로 미국인야채상인 에모리·제롬·윌리엄즈 2세를 기소했다.

윌리엄·스위셔州검사는 윌리엄즈2세가 방화기도및 방화教唆혐의로 피소됐다고 밝히고 그가 다른 사람들을 고용하여 서부 볼티모어에 있는 한국인이민들의 야채상점들에 방화하려했다는 혐의를 받고있다면서 윌리엄즈 2세는 한국인이민들과 같은 지역에서 상점을 경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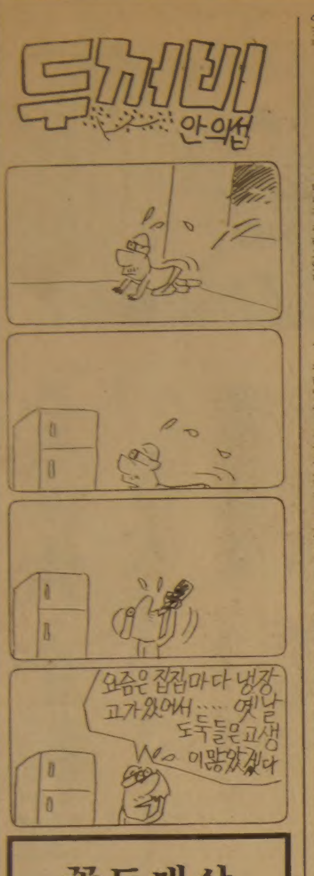
한편 이지방에서 발간되는 볼티모어·뉴스·아메리칸紙는 볼티모어시 청소부들이 쓰레기를 치워주는 조건으로 한국인 상점주들에게 현금징수를 강요하고 있다고 밝히고 27명의 한국인 상점주들은 매월 40달러를 청소부들에게 주고 있다고 말한것으로 보도했다.

새벽 10代強盜 銀行대리 被殺

부인도찔러 重態

【春川=聯】23일 새벽0시10분께 강원도春川市雲橋洞8통2반 金성옥씨집에 金모군(19·주거부정)이 침입, 금품을 훔치다가 건넌방에 세들어사는 변대식씨(36·江原은행본점 총무과대리)와 변씨의 부인 李貞子여인(31)을 미리 준비해간 흉기로 마구 찔러 변씨는 그자리에서 숨졌고 李여인은 중상을입고 春川도립병원에 입원가료중이나 생명이 위독하다.

경찰에따르면 金군은 이날밤 金씨집 건넌방에 침입, 장롱등을 뒤지다가 인기척에 놀라 잠을깬 변씨가 「도둑이야」하고 고함치며 붙잡으려 하자 종속에 미리 준비해 갔던 흉기를꺼내 변씨의목과 가슴등4군데를마구찔러 그자리에서 숨지게 했다는것이다.



꽃도매상
437 CARLAW ST.
☎ : 465-8167

자전거修理工 수배

水原 少女 연쇄납치미수 事件

【속보】여자어린이 연쇄납치미수사건을 수사중인 水原경찰서는 23일 사건당일 행방을 감춘 水原시내 모 자전거포수리공 소모씨(25)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金씨의 고향인 경북慶山에 형사대를 급파했다.

金씨는 지난달 25일부터 자전거포에서 수리공으로 일하다 18일하오 특별한 이유없이 행방을 감췄고 평소 소행이 의심스러운점이 많았다는것.

경찰은 이밖에 水原시내의 2백여개 자전거포, 9개자동차정비공장, 18개 세차장등의 종업원들을 대상으로 사건당일의 행적과 水原성곽밑에서 수거한 납빛셔츠의주인을 찾고있다. 【水原=聯】

紅島 避暑여객선 또事故

안개속航海 좌초…人命피해없어

【木浦=聯】紅島에서 피서관광객 2백10명을태우고 木浦로 오던 여객선이 이번엔 짙은안개에 휘말려 좌초돼 긴급구조에 나섰다.

23일 상오7시45분께 전남 海南郡 花源面梅月里앞 2백m해상에서 木浦해운소속 여객선 동원호(2백12톤·선장 金泰東·40)가 짙은 안개속을 무리하게 항해하다 좌초됐으나 승객 2백10명과 선원7명은 모두 무사한것으로 알려졌다.

동원호는 지난22일상오 대흥호의 충돌사고로 紅島를가지못한 승객들을태우고 木浦항을 출발, 紅島에서 다시 관광객을태우고 木浦로 돌아오던중 이날하오6시께 新安郡都草面화도리 해상에 이르렀을무렵 짙은 안개로 항해가 어렵게되자 화도리에 일단 정박, 23일 새벽4시께 짙은 안개속을 무리하게 항해하다 좌초된 것이다.

◇昌慶苑 호랑이도 "첨벙"

◇전국이 30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계속되자 昌慶苑의 호랑이도 지치고만듯 가쁜 숨을 헐떡이다가 『첨벙』물속에 몸을 담갔다. 물통속에 비스듬히누운 虎公이 『이제야 살것 같다』는 표정을 짓고있다.

銀行담보 안서준다 妻男이 매부를刺殺

23일 상오11시30분께 서울江東區千戶3洞199의1 鄭基英씨(25·무직)안방에서 鄭씨의 처남 李根相씨(27·행상 경기南楊州郡 九里邑水澤里604의57)가 식칼로 鄭씨를 마구찔러 숨지게하고 이웃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李씨는 3개월전 南楊州의 자기집을 담보로 4백만원을 대부받아 매부 鄭씨와 함께 사업자금으로 나누어 쓰기로 했으나 鄭씨가 이를 어기자 2개월전부터 鄭씨집에와 살고 있었는데 이날 鄭씨가 이사비용 10만원까지 주지못하…

무더위 다소 주춤

어제大暑, 29일부터 다시 불볕

22일은 연중 가장덥다는 대서(大暑). 10일째 전국을 휩쓸고있는 불볕더위는 이날 다소 주춤, 大邱33.6도로 최고를 기록했고 26~33도의 분포를보여 예년과 비슷한기온을 보였고 일부 영남지방에는 소나기도내려 한때 무더위를 식혀주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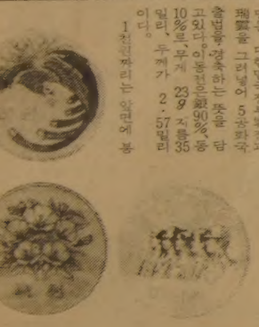
한편 중앙관상대는 그동안 우리나라를 뒤덮고있던 북태평양 고기압세력이 22일부터 다소약해져 이번 주말까지는 이같은 날씨가 계속되겠다고 밝히고 29·30께부터는 다시 불볕더위가 계속되겠다고 예보했다.

敎會서훔친돈 분실 運轉士주워 主人에

22일밤 9시45분쯤 서울永登浦區 汝矣島 지하차도에서 세방기업 경기9바 2758호 트럭운전사 權純政씨(51)가 차도 중앙선부근에 현금과 수표가 흩어져있는것을보고 차를 세운후 동전까지주어모은 4백85만7천원을 부근 KBS에 맡겼다.

權씨와 방송측은 돈과함께 습득된 35개의 봉투에「순복음 중앙교회」라는 인쇄가 찍혀있는것을 보고 교회야간 당직자에게 알린결과 이돈이 교회직원들의 월급이었음이 밝혀졌다.

이어 교회측은 이날 도둑이 교회금고를 털어달아나다 떨어뜨린 4백85만여원의 현금과 수표를 트럭운전사가 주워 주인에게 돌려주었다.



第5共和國 紀念鑄貨발행

2만원·1천원·1백원3種

제5공화국 출범을 경축하는 기념주화가 오는8월14일을 기해 발행된다.

이번에 발행되는 기념주화는 2만원짜리 銀貨가 10만개, 1천원짜리 니켈貨가 2백만개, 1백원짜리 니켈貨 5백만개로 모두 3종 7백10만개이다.

2만원짜리 은전은 앞면에 태극기를 배경으로 남녀 시민과 근로자 군인학생등 5명으로 國民像을 부각시켜 국민총화를 상징했고 뒷면은 대한민국정부휘장과 瑞雲을 그려넣어 5공화국 출범을 경축하는 뜻을 담고있다. 이동전은 銀90%, 동10%로 무게 23.9g 지름35밀리, 두께가 2.57밀리이다.

1천원짜리는 앞면에 봉황, 뒷면에 태극기와 서운이 그려져있으며 니켈1백%, 무게17g, 지름33밀리, 두께2.6밀리이다. 1백원짜리는 앞면엔 무궁화, 뒷면에 태극기와 서운이새겨져있으며 동75%, 니켈25%, 무게12g, 지름30밀리, 두께2.3밀리이다.

한국은행은 기념주화발행에 따르는 물의를 피하기위해 발행전량을 금융기관 저축성예금가입자들에게 교환해주기로했다.

한국일보 무료배부 —우편파업기간중

표주박

가위바위보로 '겨울放學책줘' 화난學父母 "비교육적이다"

○…충남舒川郡西面 西面국민학교(교장 林炳昭)는 여름방학을 맞아 방학책을 나눠주면서 책이모자라자 2명의 학생에게 겨울방학책을 지급해 말썽.

○…이학교 2학년담임 현주교사(28)는 지난20일 학급어린이 43명에게 여름방학책을 나눠주면서 책2권이 부족하자 몇몇어린이에게 가위바위보를시켜 진 片모군(8)과 페모양(8)에게 작년12월10일 한국개발원이 펴낸 겨울방학책을 지급했다는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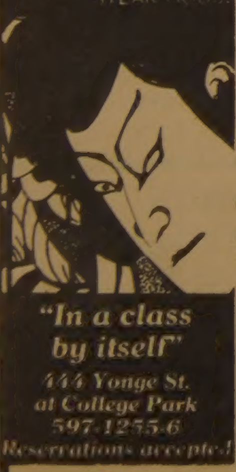
○…이같은 사실을 알게된 片군의 아버지 片英福씨(48·舒川郡西面馬梁里190)는 학교에찾아와 『가뜩이나 성적이 뒤져 걱정인데 학교측의 과실을 어린이에게 돌리는것은 교육적으로 있을수없는일』이라며 항의, 학교측과 시비를벌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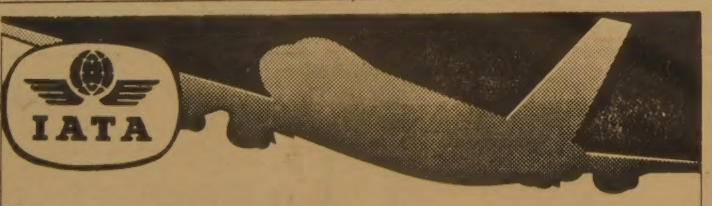
○…이에대해 舒川郡교육청은 『방학책을 주문한뒤 전입생2명이 추가되는 바람에 모자라게됐다』고 해명했다. 【長項=聯】

空軍수송隊 16년 無事故飛行

세계 最初, 6만3천시간 기록

공군 제5672부대는 23일 공군수송부대로서는 한국최초로 16년간 무사고비행기록을 세웠다. 이날 상오10시5분 炳哲소령이 작전임무를 마치고 기지에 안착하는순간 수립된 기록은 항속시간으로 6만3천시간, 거리로 따지면 지구의 4백20바퀴인 1천7백만㎞에 해당하는 단 1천의 사고도없이 비행한 기록으로 한국공군의 우수성을 나타낸것.

일본스테이크 집
전형적인 일본식
Kabuki
JAPANESE STEAK HOUSE

STORE HOURS
평일 :
스페샬점심시간
11 : 45AM~2 : 30PM
5 : 00PM~11 : 00PM
토요일 :
5 : 00PM~11 : 00PM
일요일은 문을 닫지만 예약에 한해서는 언제든지 일을 합니다.
"In a class by itself"
444 Yonge St. at College Park 597-1255-6 Reservations accepted
444 YONGE ST. at College Park
전화 : 597-1255-6
※파티, 단체예약등 환영함.

IATA

서울왕복 $1,180!
●여름철 SEAT SALE
●KAL뉴욕경유 귀환 자유
★방문초청 특별요금(초청장 작성)
★저렴한 국내선 요금(SKYBUS · CHARTER)
★월부 · 크레딧 카드 환영
신세계 봉사와 개척의 여행사
NEW WORLD TRAVEL
712 Bloor Street West, Toronto M6G 1L4
김창범 536-2155·2156 (R)492-7525

동양식품
교민의 성원속에
나날이 발전함을
감사드리며, 집집마다
배달도 하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함 태 민올림
248-5131
1662 JANE ST.(로렌스)
D. Y. FOODS

企銀·서울信託도 準決진출

金融團축구 맥없는 비기기작전 빈축

◇企業銀行—서울信託銀行의 대전。서울信託공격진이 볼을 몰고 대시하자 企銀의 柳東春㊥이 달려들며 저지하고있다。

企業銀行과 서울信託銀行이 준결승에 올랐다。企銀과 서울信託銀은 23일 효창운동장에서 벌어진 금융단축구대회 6일째 B조 최종경기에서 0—0으로 비겨 두팀모두 1승2무를 기록하고 준결승에 나가게 되었다。두팀은 승점과 골득실차가 같았으나 企銀이 골을더 많이넣어 B조1위가됐고 서울信託은 2위를 차지했다。

이로써 25일열리는 준결승 대진은 韓一銀行—서울信託、企業銀行—第一銀行전으로 짜여졌다。企銀과 서울信託은 이날 비기기만해도 준결승에 오르기때문에 서로 골을넣으려는 의욕을 보이지않은채 맥없이 80분경기를보냈으며 이어벌린 商業銀行과 住宅銀行의 경기는 준결승진출과는 상관없이 B조 3、4위순위를 결정하는 경기가되고말았다。

◇예선 최종일전적
▲B조
기업은행 0—0 서울신탁
(1승2무) (1승2무)

美都波 頂上탈환

실업排球、現代꺾고 올2冠王차지

【釜山=李洪烈기자】美都波는 22일 釜山九德체육관서막을 내린 81년도 제2차전국남녀실업배구연맹전에서 라이벌 現代와 2시간34분에걸친 풀세트접전끝에 3—2로 승리、실업정상자리를 되찾았다。美都波는 이로써 지난2월 종합선수권에이어 올시즌 2관왕에 올랐다。

세트스코어 2—2。마지막 세트들어 美都波는 신예 李明姬가 공수양면에서 분전하고 에이스 金花福이 절묘한 강연타를터뜨려 5—3、11—4까지 앞서나갔다。現代는 단신 南明禮(166㎝)가 좋은 공격을퍼부으며 추격에 나섰으나 주장 李恩敬、세터 金愛洙가 끝내부진、15—6으로 물러서고 말았다。양팀은 지난2월 종합선수권때 결승서 풀세트접전을 벌인끝에 美都波가승리했고 그후 종별선수권에선現代가 정상에 올라선바있다。

◇최종일 여자부 결승

미도파 3	15	14	15	11	15	
현대 2	6	16	6	15	1	

◇남녀부 개인상
▲최우수=李奎錫(종합화학) 金花福(미도파) ▲공격=金華石(종화) 康容順(미도파) ▲수비=高泰辰(한전) 金英淑(현대) ▲세터=申致容(한전) 金愛珠(현대) ▲감투=金永哲(통신교) 元永禮(도로공사) ▲인기=崔元默(한전) 李恩敬(현대) ▲지도=金潤植(종화감독) 李昌浩(미도파감독)

남平泳百m 世界新 美데이비드

【부쿠레슈티(루)=聯】美國의 니·데이비드와 中共의 샤오·홍은 22일 시작된 U대회수영에서 각각 세계신기록을수립했다。데이비드는 남자평영100m예선에서 1분4초62로 종전기록을 0.5초 단축했으며 홍도 여자평영100m에서 1분14초39로 종전기록을 0.18초 단축했다。

全北3市 체육대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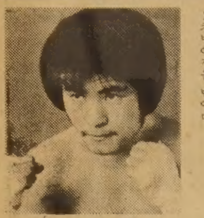
【群山=聯】제7회 全州·群山·裡里市 대항 초·중·고 체육대회가 24일 群山공설운동장을 비롯、9개 보조경기장에서 거행된다。

金喆鎬 29일 義務방어전

WBC플라이급1位 美젠슨과 九德體서

金 伏더위속 복부連打 기술연마 총력

젠슨 왼쪽잽 날카롭고 펀치력正確 평가



◇金喆鎬

◇젠슨

金煥珍(26)이 프로복싱 WBA주니어 플라이급 타이틀을 차지한 여세를몰고 WBC 슈퍼플라이급챔피언 金喆鎬(20)가 오는 29일 저녁 釜山九德체육관에서 美國의 흑인선수 윌리·젠슨(27)과 타이틀 2차방어전을 벌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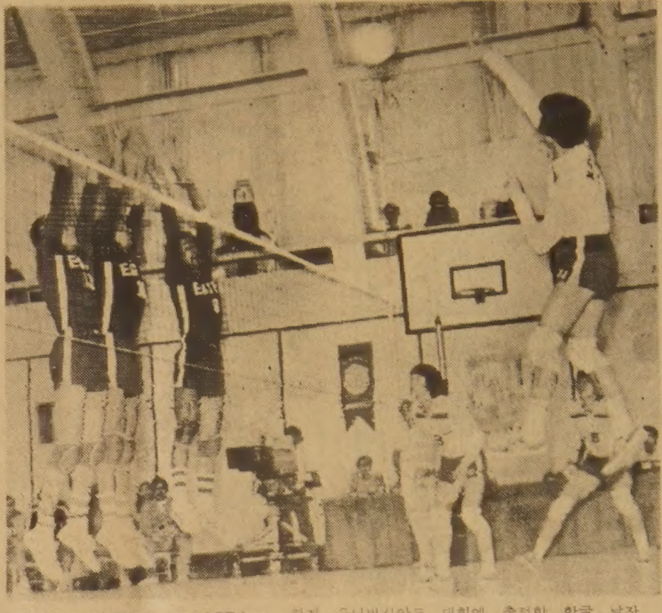
지난 4월22일 장충체육관서 日本의 와타나베·지로(渡邊二郎)를 판정으로 물리치고 2차방어에 성공했던 金은 이번 젠슨과의 의무방어전에 총력을 기울여 불볕더위속에서 洪秀煥트레이너의 지도로 강훈을 쌓고 있다。

20일 내한하여 가벼운 슬으로 컨디션을 조절하고 있는 젠슨은 현재 WBC슈퍼플라이급 1위에 랭크돼있고 미국권투협회(USBA) 플라이급 챔피언。73년5월 프로에 데뷔하여 26승(10KO) 2무1패의 전적을보이고있는 노련한선수로기량이나 캐리어면에서 金에게 큰위협이되고있다。젠슨은 75년 루페·핀토르(멕시코·현WBC밴텀급챔피언)에게 KO로패해 유일한 1패를 기록했으며 우리나라 권투팬들에게 널리알려져있는 구티에스·파디스(멕시코)와 라파엘·오로노(베네수엘라)와 각각 무승부를 기록했다。몸놀림이 기민하고 펀치가 좋은 젠슨은 잽이 날카롭고 펀치가 정확하다는 평가를받고 있는 선수이다。

金은 『캐리어에서 젠슨이 앞서고있는점은 인정하지만 링위에서대결하면 절대로 밀리지 않을것이다』며 패기를 보이고있다。권투스타일이 소극적이고 맷집이 약하다고알려진 젠슨을 공략하기위해 金은 복부를 連打하는 기술을연마하고있다。

노련한 트레이너 이튼씨의 지도를받아 오늘에 이른 젠슨은 『金과의 타이틀매치에 대비하여 충분한 연습을 했다。타이틀을 뺏고 귀국하겠다』고 장담했다。【美】

테니스男單式 李우룡·金春浩 3回戰에



◇블로킹뚫고 오픈强打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에 출전한 한국 남자배구 팀의 嚴漢明가 이집트의 3인 블로킹을뚫고 오픈 강타를 날리고있다。한국은 對이집트와의 2차전서 3—1로 승리했다。【부쿠레슈티=AP聯】

全瑛大·金壽玉組 2回진출

方大斗(레슬링) 3·4位戰으로 밀려나

夏季 유니버시아드

【부쿠레슈티=楊森특파원】레슬링 그레코로망 플라이급의 方大斗는23일밤 계속된 81년도 유니버시아드 대회 5일째 준결승에서 루마니아의 기나·니쿠와 팽팽한 대결끝에 3대3의 동점을 이뤘으나 선독점을 하지못해 아깝게 판정패했다。이로써 方大斗는 A조 2위인 일본의 미야하라와 23일밤(한국시간) 동메달을 놓고 3、4위전을 벌이게 됐다。方大斗는 이날 8·23스계인팅에서 벌어진 B조 수위 결정전인 준결승서 선전、동점을 이뤘으나 루마니아의 기나·니쿠가 선취점을 올림으로써 대회규정에따라 결승진출에 실패했다。

이날 펜싱남자 사브르개인전에 출전한 한국의 車律翹 趙在秀 鄭州國등 3선수는 모두 1·2회전서 탈락했다。車는 1회전서 2승2패를 마크、2회전에 올랐으나 2회전서 4전4패로 탈락했고 趙와 鄭은 1회전서 밀려났다。

한편 한국남자배구팀은 22일하오3시(한국시간22일하오9시)에 가진 두번째경기에서 이집트를 세트스코어 3—1로 꺾고 21일의 對요르단戰에이어 2승을기록했다。

한국남자배구팀은 23일밤 조 최종경기에서 中共과 예선B조 마지막 경기를 벌여 여기서 이겨야 8강의 결승리그에 진출하게된다。中共에 패할 경우에는 9~15위전에 나가게된다。中共팀은 4개월전 홍콩서 열렸던 월드컵에선배의 코칭스태프와 선수들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남자테니스단식 2회전에서 李우룡은 데이비드·매서슨(뉴질랜드)을 2—0(6—0、6—3)으로 꺾고、金春浩는 파우지·마즈무드(리비아)에 기권승、3회전에 진출했다。혼합복식 全瑛大·金壽玉조는 英國의 아론스·도니간조를 2—0(6—4、6—4)으로 물리치고 2회전에 올랐다。그러나 여자복식 1회전에서 金壽玉과 中順浩조는 루마니아의무시지·마리아조에 2—0으로 패배 탈락했다。

한국남자농구팀은 예선B조 최종경기에서 세네갈과 접전끝에 62—57로 신승、예선B조 2승1패를 기록하여 9~16위전에 나가게되었다。

◇제4일전적
▲레슬링 그레코로망 플라이급 B조3회전 方大斗 폴 무노즈(멕시코)
▲펜싱 ▲남자사브르개인전 車律翹(2회전 탈락) 趙在秀(1회전 탈락) 鄭州國
▲배구 ▲예선B조 한국 3 (15-4, 15-4, 15-5, 8-15) 1 이집트
▲농구 ▲예선B조 한국 62 (34-30, 28-27) 57 세네갈
▲테니스 ▲남자단식 2회전 李우룡 2 (6-0, 6-3) 0 매서슨(뉴질랜드) 金春浩 기권 마즈무드(리비아)
▲혼합복식1회전 全瑛大·金壽玉 2 (6-4, 6-4) 0 아론스·도니간(영국)
▲여자복식1회전 무시지·마리아(루마니아) 2 (6-1, 7-6) 0 金壽玉·中順浩

全北白山高 첫勝利

男女고교배구 작년覇者 忠南商高 완파 3—0

男高 B組선 李載求등 활약으로 文一이 城都제압

제3회 KBS배쟁탈 전국시도대항 남녀고교 배구대회 이틀째 경기가 23일 장충체육관에서 속행、남고 A조의 全北白山高는 좋은 서브리시브를 바탕으로 속공플레이를 전개、지난해 대회 우승팀 忠南商高를 3—0으로 완파、첫승리를 기록했다。

南商은 白山의서브를 제대로 소화하지못해 위력없고 단조로운 오픈공격에만 의존했으며 수비도 좋지않아 첫판서 참패、지난대회 최종 승자로서의 면모에 먹칠을했다。

남고B조서는 세터 李載求와 李龍文의 콤비플레이가 위력을 보인 文一高가 城都高를 3—0으로 눌러 양팀모두 1승1패씩을 기록했다。전원 1·2년생들로 구성된 文一高와 城都高戰은 경기경험이 바로 승부와 직결된 한판이었다。

文一은 다부진 수비로 城都의 강타를 지켜 1점차로 첫세트를 따냈다。2세트들어서도 文一은 180㎝의 李龍文이 위력있는 오픈강타를 터뜨리는가 하면 중앙에서 멋진 속공플레이를 연출、계속 리드를 잡아 나갔다。여기서 鄭秉秀·姜永敏등이 왼쪽에서 오픈공격으로 가세、7점차로 2세트를 따냈다。城都는 1년생 洪海天이 분전하고 전원이 파이팅을 되찾아 文一에 11—9、3점차까지 따라붙었다。

◇제2일전적
▲남고A조 백산고 3 (15-4, 15-7, 15-7) 0 충남상고 (1승) (1패)
▲남고B조 문일고 3 (15-10, 15-8, 15-1) 0 성도고 (1승1패) (1승1패)
▲여고A조 근영여고 3 (15-2, 6-15, 15-12, 15-12) 1 전주여고 (1승) (2패)

學校마다 陸上部창설

陸聯、육상中興 장기計劃案 마련

육상경기연맹은 육상중흥 장기계획을 수립 ▲저변확대 ▲경기수준향상 ▲지도자의 자질향상 ▲기금조성의 활성화 ▲시설확충등에 역점을 두기로했다。

연맹은 오는86년까지 현재 4천9백명의 등록선수를 5만명으로 10배가량 늘리기로 방침을 세우고 ①각급학교육상부창설 의무화및 각종대회증설 ②실업팀확대 ③소년체육보급 ④범국민 달리기운동 ⑤신인발굴 위원회설치 ⑥장학금지급등의 사업을 펼치기로했다。

또 경기력향상을 위해서 ①주니어를 중심으로한 강화훈련 ②신인발굴사업에서 선발된 선수들의 특별지도 ③우수지도자 양성 ④우수외국지도자 초청 ⑤대회참가 회수증가 ⑥해외훈련등을 추진키로했다。

그리고 지도자의 자질향상을 위해 ①지도자강습회개최 ②지도자연구발표회 개최 ③전국체육교사의 심판강습회 ④육상교재발간 ⑤육상코치 아카데미설치 ⑥종목별 전임코치제 실시 ⑦신인코치발굴 및 해외연수등의 사업을 펼친다。

육상기금조성을 위한 기금조성후원회를 구성하고 시설용기구의 국산화를 84년까지 이룩하며 국내코치및 대표선수지도를 맡기는등의 사업을펼친다。

1회「월드게임」오늘開幕

美캘리포니아州 산타클라라市 開催

非五輪 종목 體育人제전、國旗도 안달고

국가競爭지양·友誼증진·競技力향상목표

非올림픽종목의 종합국제대회인 제1회 월드게임이 24일 개막、8월2일까지 美國 캘리포니아주 산타클라라시에서 개최된다。

올림픽대회등 각종국제대회와의 경쟁이나 마찰을 지양、국가적 경쟁보다는 우의증진을 통한 스포츠교류와 경기력향상에 목표를 두고 창설된 월드게임은 ①각종목의 국제연맹이 경기운영을 책임지고 ②단체전은 최대 12팀까지、개인전은 소수정예선수로 제한하는등 대회규모의 팽창을 피했으며 ③종목별 국제연맹의 결정에 따라 프로와 아마추어선수가 함께 기량을 겨루게 하고 ④선수들은 국가단위가 아닌 종목별로 숙식을 함께 하는등 국가의식을 배제、국기를 달지 않고 국가연주도 없다。

따라서 월드게임은 국가 게양 국가연주가없으며 AISF총회에서 비올림픽 종목의 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다。

월드게임은 지난 74년 6월 스위스에서 개최된 GAISF총회에서 非올림픽종목 경기 종목의 종합대회인 월드게임에 대한 논의가 일어 79년10월 세계태권도연맹 金雲龍총재가 NOF회장에 선출되자 80년5월19~20일에 서울에서 열린 NOF총회에서 제1회 대회가 확정되었다。

이번대회에는 소프트볼 파워리프팅 롤러스케이팅 터·엽브워 (줄다리기) 수상스키 핀 크로나이즈드스위밍등 13개 종목에 걸쳐 ... 한국은 이번대회에 야구 태권도 배드민턴 볼링등 4개종목에 걸쳐 선수34명(남자31·여3)이 참가한다。

審判판정에 잇단항의

訂正일수 史上처음 뜀틀선 金메달4명

夏季U體操종목

【부쿠레슈티=楊森특파원】루마니아 유니버시아드에서 심판판정을둘러싼 시비가 끄리를 물고 일어나고있는데 특히 시끄러운 종목이 체조。육상이나 수영처럼 정확한 계시에의해 판정을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의 판단에 의해 채점하는 경기여서 편견이 많이 작용될수 있다고 하지만 이번체조경기에서 있었던 일은 한종목에서 4명의 우승자가 나오는 해프닝까지 벌어졌다。

체조뜀틀에서는 무려4명의 선수가 금메달을 받는 이변이 일어났다。中共의 리·링과 리·시오핑、蘇聯의 유리·코로레프、루마니아의 쿠르트·스지리어가 모두 19.55점으로 金메달을 받았고 銀메달과 銅메달 수상자는 없었다。체조종목에서 4명이 공동1위를 한것은 사상 처음있는 일이다。

外製담배 단속강화 吸煙者 名單을공개

정부는 앞으로 외제담배 단속을 강화하는한편 사회지도층인사와 공직자가 적발될때는 그명단을 소속기관에 통보하는 동시에 지상에 공개할 방침이다。

구독신청 배달사고 533-2361

佛光寺 법회안내

장 소 : 불 광 사
지도법사 : 석 광 옥 스님
법회안내 : 일요일 오전11시~12시(일반법회)
(청년회 교리연구)
일요일 오후7시~9시(좌선 : 참선지도)
주 소 : 288 Hownslow Ave. Willowdale, Ont. (Yonge & Finch)
전 화 : 223-9152

T. P ADVERTISING GROUP
바우종합광고회사

●간 판 부 : 각종간판 · 윈도우 싸인 · 쇼-카드전문
●그 래 픽 디자인부 : 신문광고 · 상업디자인 · 비지네스및 개인명함 회사나 단체 마-크 · 각종포스터및 팜프렛
●인 쇄 부 : 도서(책자) · 편집및 출판(광고지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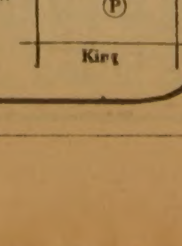
637A BLOOR ST. W. TORONTO.
☎ : 535-0647, 0545
대표 송 광 현

KOREA HOUSE

*즉석불고기 전문
666 BLOOR ST. WEST
TORONTO, ONTARIO.
☎ : 536-8666

오사까 하우스

각종 술을 써비스 합니다.
값싸고 맛있는 식당(초밥 · 국수류등)
부디 한번 찾아주세요(쓰끼아께, 덴뿌라, 사시미)
*스토아시간 :
월~목 11 : 00AM~10 : 30PM
금요일 11 : 00AM~11 : 00PM
토요일 5 : 00PM~11 : 00PM
일요일 5 : 00PM~10 : 00PM
OPEN 7DAYS
12 TEMPERANCE ST.
☎ : 368-24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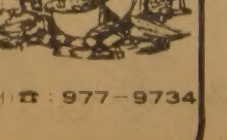


동양한약상사

20여년의 경험과 연구로 귀하의 문의에 응하겠읍니다 정확한 진맥 한방처방조제및 치료상담
녹용 웅담, 인삼 우황청심환 전지침
자외선치료 적외선치료 Hydrotherapy
★Downtown Office : (416) 537-6685
8AM-6 : 30PM
621A Bloor St. W. 한국관 맞은편
★Willowdale Office : (416) 222-9485
7PM-10PM
244 Finch Ave. E. (Yonge St 에서 Bayview 사이 다가시임)
★평일 오후3시 및 토요일에 오시는 분은 미리 전화주십시오 전화 : (416) 222-9480

意安飯店 (의안반점)

홍콩식 그대로의 분위기, 새벽4시까지 영업
일류요리사가 만드는 전통적인 광동식 요리,
경제적이고 실질적인 값싸고 맛있는 음식.
*항상 신선한 랍스타, 게, 굴, 해삼, 전복등을 준비해 있읍니다.
영업시간 :
월~금 : 4PM~4AM
토요일
일요일 : 12PM 부터
171 DUNDAS ST. W.
(Spadina 동쪽으로 Chestnut 코너) ☎ : 977-9734



거 구 장

— 특 별 메 뉴 —
즉석불고기, 선지피 해장국,
멍게, 생선회.
한식, 중화요리, 케네디안식
*회갑, 생일파티, 동창회 피로연
영업시간 : 11A. M. ~ 새벽2시까지
5 BETHRIDGE RD. ETOBICOKE
☎ : 742-1618
곽 정 렬, 김 선 남

SHANGHAI RESTAURANT

메뉴 : 군만두, 찐만두, 짜장면, 우동등
Open Hours : 화~금 11 : 30AM-12PM
일요일 11 : 30AM-11PM
(공휴일도 문 엽니다)
주소 : 334 SPADINA AVE.
(NEAR KENSINGTON MARKET)
☎ : 864-9347

◇歷代장관 한자리에 경제기획원을 거쳐나간 7명의 前·現職장관이 開院20주년의 成年을 自祝하는 기념리셉션에 참석, 케이크를 자르고 있다。왼편으로부터 金元基, 南悳祐, 申鉉碻, 太完善, 申秉鉉, 元容奭, 金顯哲씨。

高度成長의 産室 20년

經濟企劃院 歷代장관과 그 秘話

長官 16명明滅…1년미만 短命도 10명

경제기획원 역대長官과 주요업적 (괄호안은 재임기간)

代	長官	현직	주요업적
1	金裕澤 61·7·22~62·3·2	사망	▲경제개발5개년계획착수
2	宋堯讚 62·3·2~62·6·18		▲화폐개혁
3	金顯哲 62·6·18~62·7·10		
4	金裕澤 62·7·10~63·2·8		
5	劉彰順 63·2·8~63·4·12	貿協회장	
6	元容奭 63·4·13~63·12·16	惠仁車輛사장	
7	金裕澤 63·12·17~64·5·11		
8	張基榮 64·5·11~67·10·3	사망	▲외자도입개방 ▲금리현실화
9	朴忠勳 67·10·3~69·6·3		▲京仁고속도건설
10	金鶴烈 69·6·3~72·1·4	사망	▲浦鐵건설 ▲京釜고속도건설
11	太完善 72·1·4~74·9·18		▲8·3조치
12	南悳祐 74·9·18~78·12·22	국무총리	▲附價稅실시 ▲환율인상 ▲수출1백억달러, 국민소득1천달러, 쌀생산4천만섬돌파
13	申鉉碻 78·12·22~79·12·13		▲經濟安定化시책
14	李漢彬 79·12·14~80·5·22		
15	金元基 80·5·22~80·9·2		
16	申秉鉉 80·9·2~현재		▲公正去來制도입

○…경제개발계획의 본격 始動과 함께 출범했던 경제기획원이 22일로 開院20주년을 맞았다.

경제기획원은 이날 成年을 自祝하는 조촐한 기념행사를 갖고 아침에는 직원끼리만의 간단한 기념식, 저녁 6시30분부터는 1층구내식당에서 前職인사들을 초청한 기념리셉션을 가졌다.

南悳祐씨 4년3개월 最長壽
金顯哲씨는 불과22일 最短命

고참官吏들「張基榮·金鶴烈시대」가 全盛期

[金曙雄기자]

島嶼생활 크게向上

所得23%성장 98%電氣시설

有人島 93%에 食水공급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서 4연패, 기능한국을 세계에 떨친 자랑스런 기능청소년들이 24일상오 서울 正修직업훈련원에서 해단식을 갖고 산업현장으로 돌아간다。

닦은技倆 산업一線서 발휘

국제技能올림픽 4連覇 主役들의 다짐

金메달 5百·銀4百만원 상금

1級기능사시험 筆記등 면제

入賞者 生産현장定着케 제도적뒷받침 필요

[李光榮기자]

정신환자들 作品 9만여점 전시

◇「무의식박물관」의 중앙전시실。환자들의 고양이와 개가 전시실 이곳저곳을 싸다니고있다。환자들의 치료에 유익하기때문에 이동물들은 그들의 동료로서 대접을 받는다。

브라질에 無意識 박물관

데생·그림·석고상·도자기
개인 病歷측정에도 이용
「어머니神」주제 가장많아 이채

누구든지 언제나 관람하게

[리우데자네이루에서]

張吉山

黃晳暎 作
崔然石 畵

第四部 逆謀
第一章 彌勒 (75)

(1615)

주식회사
신의상사
취급품목 ◆담배류 ◆쵸코렛및 캔디류 ◆GROCERY BAG류
116 TYCOS DR. TORONTO
TEL. 781-6669 · 781-6660 · 781-6012
대표 문인식

고포특별우대… 이 쿠폰과 함께 20%할인 …남자용 각종의류 및 악세사리 미스터오 FOR MEN
TIE CITY Square One 275-2187
Mister O Cumberland Centre 2 Bloor St. W. 964-2606
Mister O Commerce Court Centre 869-0589

공 고

토론토지구 한인회는 회칙 제28―33조및 제8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회장단 보궐선거및 임시총회를 실시합니다.

선거에 관한사항및 임시총회

1. 회장단 입후보자는 회칙 제28조및 제29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은 입후보등록서류를 구비하여야 합니다.
 가. 이력서 2부및 명함판 사진 2매
 나. 영주권 또는 시민권 사본 1부
 다. 30인 이상의 추천서 1부
 라. 등록금 1천달러(현금 또는 보증수표)
 마. 선거운동원 명단 1부
2. 등록마감 일시및 장소
 가. 마감일시 : 1981년8월24일(월) 오후5시
 나. 장 소 : 토론토지구 한인회관
3. 선거일시및 임시총회
 1981년 9월26일(토) 오후7시(장소는 추후 발표함)
4. 선거관리에 관한 일체업무는 회칙 제27조에 의거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관합니다.
5. 만일 단일 입후보 등록일 경우에는 위 3. 선거절차는 제외하고 다음과 같이 임시총회를 소집합니다.
 가. 일 시 : 1981년8월29일(토) 오후7시
 나. 장 소 : 토론토지구한인회관
 다. 안 건 : 신임회장단 인준및 기타사항

1981년 7월 24일

토론토지구 한인회 과도운영위원회 위원장 박 인 순

블론디 딘·영作

本社特約·連載漫畫

"인정 많으신 선생님, 저는 10달러가 꼭 필요합니다"

"가련하고 병든 저희 어머니를 위해서랍니다"

"당신 일할생각은 해보지 않았소?"

"오, 어머니는 일나가기에 너무 편찮으시답니다!"

싸다고 소문 난
가나안
카텐
2390 LAKESHORE BLVD. W.
(B) 252－4857
(R) 252－6602
유 원 덕

日新聞의 엉뚱한 論評

●趙治勳과 本因坊戰보도

크고 작은 일본의 공식 棋戰은 18개가 있다. 대부분을 신문사가 주관하고 있는데 그중 3大타이틀로 名人、本因坊、棋聖을 꼽는다. 이 3大타이틀 가운데 둘을 趙治勳名人이 차지해 2관왕이 되었다.

상금이 가장 큰 棋聖은 요미우리(讀賣)신문이、가장 권위를 자랑하는 名人은 아사히(朝日)신문이、또 가장 전통있는 本因坊은 마이니찌(每日)신문이 주관하고 있다.

東京특파원들은 해마다 천재棋士 趙治勳바둑戰을 따라 취재에 분망하지만 이번 本因坊처럼 까다롭고 불쾌한 때는 없었다.

趙名人이 사상 유례없이 7연승으로 本因坊도전권을 획득、다께미야(武宮)本因坊과 7번승부로 판가름하게 되자 東京특파원들은 마이니찌신문사에 취재협조를 요청했었다。주최측인 마이니찌신문으로부터 협조를 얻어 棋譜를 조금이라도 빨리 고국의 바둑팬들에게 송고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마이니찌신문측은 한마디로 「노」。일본은 거금을 들여 주최하는 바둑棋戰의 기보를 한국특파원들에게 먼저 줄수없으며、설사 고려한다해도 일본 棋院과의 협의없이는 안된다는 것이다。

돈을 주고 棋譜를 사겠다는 제의에도 그런 예가 없기때문에 협조할수 없다고 일축했다。

요미우리신문과 아사히신문이 주최하는 棋聖과 名人戰때는 주최측의 호의와 협조로 棋譜를 입수하여 송고할수 있었던것과는 달리 마이니찌신문은 처음부터 비협조적이었다。

趙名人이 다께미야와의 싸움에서 세번연승、한번만 더 이기면 本因坊을 따는 제4局부터 특파원들은 현장취재에 나섰다。

6월23일과 24일 일본의 東海앞바다를 바라보는 能登반도에서 열린 제4局에서 趙명인은 아깝게 패했다。

마이니찌신문은 『한국기자들이 몰려와 趙명인의 패배에 실망한듯 돌아갔다』고 짐짓하게 보도했다。

한국특파원들은 5局과 6局을 계속추적、보도했다。

주최자인 마이니찌신문의 까다로운 요청으로 「대국장」 근처에는 얼씬도하지 않고 대국이 끝난뒤 趙名人과의 인터뷰만을 취재보도한다는 방식으로 취재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이니찌신문은 7월23일자 「기자의 눈」欄에 이구찌(井口)편집위원의 집필로 「趙治勳本因坊탄생에 생각한다」라는 제목으로 『바둑의 승부는 韓日대항전이 아니다』라고 설파하고 『한국보도진이 몰려와 과열보도로 바둑의 참뜻을 그르치고 있다』는 투의 글을 썼다。

그는 『더우기 6월23일과 24일 能登반도 다가야호텔에서 열린 제4국째부터 韓日양국의 깃발이 호텔에 걸리는등 바둑이 양국의 대항전처럼 돼갔다』고 꼬집었다。

남의 글의 말꼬리를 잡으려는 뜻은 없다。그때 다가야호텔에 나부낀 태극기와 日章旗를 보고 우리가 생각한것은 「韓日대항전」이 아니라 「韓日친선」이었다。

趙治勳이 여섯살 코흘리개로 낯설고 물설은 일본땅에 와서 19년만에 일본의 3大棋戰가운데 2개를 따 2관왕이 되는 현장을 취재보도하는 것이 과열이란 말인가。

바둑일념으로 살아온 趙名人의 本因坊진출전을 마이니찌신문이 「대항전」인 것처럼 크게 보도한것은 어떻게 설명하겠는가。

더우기 이구찌위원은 『趙名人이 本因坊타이틀을 딴뒤 귀국해서 이타이틀을 쟁취하고싶은 사람은 한국으로 오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는가라는 소박한 질문도 나왔다』고 밝히고있다。그런 상식밖의 의문제기야말로 바둑의 참뜻과 趙名人에 대한 모독이라 지적하지 않을수없다。

일본 부인을 맞아 티없는 棋士생활을 하고 있는 趙名人은 本因坊을 딴뒤 『한국은 낳아준 조국이고 일본은 길러준 나라』라면서 韓日두나라가 친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마이니찌신문은 한국의 천재棋士를 길러냈다는 자부심을 갖고 『푸른색은 쪽에서 나오지만 쪽보다 더 푸른색을 낸다』는 長者의 風을 갖기를 바란다。

〈東京＝宋孝彬 특파원〉

流星의 賦 <139>

李炳注 作

李友範 畵

亡兆의 日月 ㉕

이이에 대한 비난은 끝간데를 몰랐다。

정희적(鄭熙績)이 경연에서 다음과같이 발설했다。

『이이는 일찌기 중이 되었다。그래 그때 과거를 못보게 되어 있었는데 심의겸이 주선하여 그는 과거를 볼수 있게 되었다。말하자면 그의 입신(立身)은 심의겸의 덕이다。그런 까닭으로 이이는 심의겸과 그 편당을 싸고 도는 것입니다』

실로 어처구니가 없는 말이다。

이이는 16세때 어머니 신사임당(申師任堂)을 여의고 3년동안 시묘(侍墓)살이를 했다。그 시묘살이가 끝남과 동시에 3월、금강산으로 들어가 불교공부를 했다。어머니를 여읜 충격으로 그는 불도에 구원을 청해 본 것이다。그리고 1년남짓 금강산에 있다가 강릉의 외가로 돌아간 것인데 바로 그 사실을 정희적이 트집잡았다。

홍적(洪迪)도 정희적을 거들어

『진(秦)나라 상앙(商鞅)이 경감(景監)을 통해서 임금을 보았는데 이이는 심의겸을 통해서 전하를 뵈었으니 그렇고 그런 것이 아니겠읍니까』

임금은 노기를 띠고 말했다。

『흥、그렇다。이이는 나라를 그르친 소인이고、나는 경망한 임금에 지나지 못한다。그렇다고 치고 너희들은 그 따위 일로 다투어서 이탕개를 잡을 수 있단 말인가』

이탕개란 북변의 국경지대를 침범하고 있는 호인(胡人)의 괴수이다。

이런 상황을 좌시할 수 없어 호군 성혼(護軍 成渾)이 상소를 올렸다。그 내용의 일단은 「이이를 배척하는 것은 대간들이 이이에게 사원(私怨)을 품은 탓」이라고 하고 「교묘하게 편당을 지어 이이를 중상 모략한 것」이라고 하는등 언사(言辭)가 자못 강경했다。

이에 임금은

『글의 사연이 충분(忠憤)에 넘쳐 간사한 무리들의 간이 서늘해지겠다。군자의 한마디는 실로 중한 것이로군』

하고 삼정승에게 전교를 내렸다。

『이이를 배척한자는 누구누구이며 붕당을 짓는 간사한 무리는 누구누구인가를 분별하여 알려라』

영의정 박순이 부복하여 아뢰었다。

『이이는 일신을 돌보지않고 나라일에 정성을 바쳤거늘 당초에 대간들을 잘 다스리지 못한것이 잘못이었읍니다。그리고 송응개와 허봉이 이이에게 사감(私感)을 가지고 있는것은 사실입니다』

그러자 임금은 좌상 김귀영(左相 金貴榮)에게 물었다。

『경은 이이를 소인으로 아는가』

이에 대한 김귀영의 답은

『사람을 알기란 진실로 어려운 것입니다。이이의 심술을 적실하게 알수 없읍니다만 경솔하게 소인으로 지목하는 것도 불가하며 그렇다고 해서 군자라고 칭찬할 수도 없읍니다。성혼은 말의 근원을 캐어 죄를 주라고 하였으나 그러하다간 언제 권간(權奸)들의 화를 입을지 모릅니다』

이어 김귀영은 성혼이 박순、이이를 공격한 자를 을사사화(乙巳士禍)의 원흉 이기(李芑)에게 비유한데 대해

『군자 동서분당이란 말이 좀 진정되어 있는데 이이의 사면과 성혼의 상소로 또 시끄러워졌으니 이것은 필시 난을 가져오는 징조가 될것으로 안다』

고 흥분했다。

아세아 한약방
특수한약처방및 침술.
물리치료, 정력감퇴,
각종보약.
678 BLOOR ST. W.
☎ : 530－0522(B)
531－4165(R)

최고의 발행부수와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는

한국안내광고

스피디 인쇄소
SPEEDY PRINTING
각종 인쇄물, 책자,
청첩장, 봉투, 편지지, 명함, 주보, 광고
팜플렛
619 Bloor St. W.
☎ : 535－3520, 630－8491

구 인

지렁이 잡이구함(유경험자에 한함)
최고가격 1000마리당 30달러
☎ : 255－0730

좋은 농장, 좋은 골프장
최고대우 1000마리당 25 － 30달러
☎ : 532－3637 미스타 계

경험있는 지렁이 잡으실분 : 대우좋음
MR. JIM OR NICK 1000마리당 $19～$25
☎ : 531－0474

유경험자 지렁이잡이구함 PETER KOTSISAS
LIVE BAIT 좋은 농장. 승용차로 지렁이 잡으실분
구합니다. 좋은 대우 ☎ : 533－0910 피터

경험있는 지렁이 잡으실분 구함 :
좋은 농장에서 아주 좋은 대우 해 드립니다.
4 계절 계속 있읍니다.
☎ : 465－9929 CALL GEORGE
C & L LIVE BAIT CO.

남녀 초저녁 청소하실분
☎ : 977－1110

입주하셔서 애기 돌 봐 주실분
☎ : 425－6216
미세스 전

가게에서 일하실 남자 풀타임 구함 :
하루10시간 근무, BAY ＋BLOOR지역
☎ : 968－9221

풀타임으로 그로서리 가게에서 일할
신체건강한 사람 구함
☎ : 690－6572

경험있는 재봉사 & 미싱기술자 구함 :
냉방장치및 식당 구비되어 있음
CO-ORDINATION DRESS LIMITED.
49 SPADINA AVE. 4th FLOOR
☎ : 367－1414

RECEPTIONIST FOR DENTAL OFFICE
EXPERIENCED PREFERRED BUT NOT NECESSARY, MUST BE FLUENT IN ENGLISH & KOREAN.
☎ : 781－9591, 535－2798

①경험있는 지렁이 잡으실분 우대 좋은장소
1000마리당 $35
②여름철 낚시미끼용 미모사, 지렁이 거머리등 세일.
LIGHTS밧데리
A & A METRO BAIT SHOP
630 QUEEN ST. E. (Queen ×Broadview)
☎ : 463－4997

VENDING TECHNICIAN
Repair & maintain all types of Vending equipment, food service equipment etc.
Ability to read & understand electrical diagram essential.
Car necessary.
5years practical experience or equivalent in the field.
CNIB
☎ : 486－2570

급 구
웨이트레스 약간명 모집 628 BLOOR ST. W.
☎ : 536－0290
한 국 관

매매및 양도

빽커매매
년매상 $300,000이상＋로타리오
☎ : 783－1984

그로서리 스토아 매매 :
1801 LAWRENCE AVE. E.
SCARB.

버라이어티 스토아를 SET UP하실분
렌트 $350, 리스6년＋6년 옵션
☎ : 461－9236 JACK PONG

작은가게를 원하시는 분 : 리스5년＋5년옵션,
렌트 $650(2층 살림집있음)
☎ : 656－7753

그로서리 스토아 매매 :
주매상 $5000 (Brimortone×Orton Park Dr.)
956 BRIMORTONE DR. SCARB

FIRE PIT햄버거 식당
주매상 8천불～만불, 가격27만불, 리스20년,
렌트 천7백불 현찰13만불 요함. 순이익8천불
☎ : 1－705－748－9722 피터보로
미스타 김 또는 미스타 리

스토아 급매 :
주매상 $4,500, 권리금 3만3천
☎ : 423－9899

버라이어티 스토아 팝니다 :
주매상 $2800, 렌트 $340, 리스5년, 2층에 2베드룸 : $275
☎ : 635－1038

그로서리 스토아 매매 :
1801 LAWRENCE AVE. E.
SCARB.

그로서리가게및 건물급매 :
2층 벽돌건물이며 경쟁이 없고 장래성이 많은 좋은 위치에 있음.
모게지 1st. 9.5%, 2nd 12.5%
458 CALEDONIA RD. ☎ : 781－7080

콘도미니엄 매매
2 베드룸＋큰 리빙룸및 부엌 $57,000(협의가능)
냉장고, 스토브, 디쉬워셔,
HWY 427×RATHBURN 오후6시이후
☎ : 622－7162 미스타 리

고급 BEDROOM SET급매 :
경대, 옷장, 2 NIGHT테블(QUEEN SIZE) 침대.
G. E. 냉장고, 커텐, 전축등 급매
☎ : 769－4366(오후5시이후)

아파트단지 버라이어티
스토아 매매
주매상 $4000, 리 스 5년
☎ : 921－0034, 783－6464(오전10시～오후6시)

GROCERY STORE매매 :
토론토서 160km서북방에 있는 타운. STORE 2000sq. ft.
2층에 방7개, 연매상 $20만, 요구액 $10만(건물포함)
1주일 57시간 개점(일요일 휴점)
☎ : 1－519－327－8368 MR. CHAE

성업중인 하드웨어
스토아 급매
하드웨어 비즈네스에 관심이 있으신 분에게는 절호의 기회임, 좋은 장소 좋은 장래성, 좋은 가격임.
전화 : 741－4520
CALL JOE

Can Am Coin Investments Ltd. － 25년간 경력 －
금동전, 은동전을 최고가격으로 드립니다.
329 QUEEN ST., WEST · TORONTO, CANADA · M5V 2A4
Telephone: (416) 366-3061 - 366-3062

간 판

각종 고급간판 제작및 수리 (Citylite Signs Co.)
777 Warden Av. 751－9236, 757－2106 홍 진 표

꽃 집

크로스웨이(구 클레어리)
꽃 집 2340 DUNDAS ST W.
(B) 535－1355, (R) 757－0905 님파·김

정 은 꽃 집 MARKLANDWOOD PLAZA안
4335 BLOOR ST. W. Etobicoke
① 모든 축하 꽃꽂이와 결혼, 장례꽃 전문
②바구니 종류와 꽃에 관한 모든 물품구비
☎ : 622－8516(B), 279－3719(R) 허소피아

제인·파크 꽃집 JANE PARK PLAZA안
875 JANE ST. TOR.
＊생화, 조화, PLANTS ＊꽃꽂이, 생일, GIFT취급
＊각종파티, 생일, 결혼, 장례꽃 주문 배달함.
☎ : B) 769－0609
R) 221－0560 여 정 웅

다우스 꽃집(DAWES FLORIST)
●각종 어랜지먼트 & 각종플랜트 ●각처주문배달함
464 DAWES RD. (Victoria Pk. & St. Clair)
☎ 751－5851 이 동 환

미 용

스타 미용실 미세스·김
남녀 커트, 파마 전문. 9 AM～8 PM 화일·월요일 휴업
2437 FINCH AVE. W. (B) 741－4410 (R) 742－0827

소니아미용실 신부화장, 남녀컷트, 파마전문
2085 LAWRENCE AVE. E. JOVAN PLAZA UNIT 3
(우체국 옆) (B) 759－8854, (R) 755－2759 미세스 허

팁스 미용실
(B) 532－7094, (R) 248－2437 (코리아하우스 뒤)

한 방 원

침 뜸
디스크, 좌골신경통, 관절염(내장질환)
진료시간 : 매일10AM～8PM ☎ : 922－7090
700 Ontario St. #517 (St. Jamestown) 박영숙

이삿짐및 운송

각종운반및이삿짐 피아노, 쿨러,
☎ : 630－6602 나 리 운 수

시설및 수리

L. N. ELECTRIC MOTORS LTD.
각종 전기 모터 수리및 신 중고품판매(40여년의 연륜)
☎ : (B) 661－5687, (R) 742－9450 MR. 김

TV출장 수리
☎ : 431－0102 MR. 박

인 쇄

TOP PRINTING CO. LTD.
각종인쇄 염가봉사, 최신의 장비및 기술
16 REXDALE BLVD. ☎ : 746－0676 박 종 남

카펫·카텐

카펫 크리닝 : 카펫·소파·체어·자동차시트
☎ : 439－6277 박 최신 스팀샴푸 크리닝

인벤토리

INVENTORY
① STORE 인수, 인계 INVENTORY
② STORE 정기조사 INVENTORY
③ STORE 납세대비 INVENTORY
＊주야 INVENTORY
TORONTO RETAILERS INVENTORY CO.
(B)259－5822, 255－8301 (R)252－2963 MR. 오

악기점

피아노 조율및 손질
이동훈(서울음대 졸)
☎ 781－0200

피아노 : 수리, 조율, 재생, 운반 중고 피아노팝니다
PIANO, TECHNICIAN
☎ : R) 636－1430, B) 783－6871
1547 EGLINTON AVE. W. 이 상 철

에어콘·히팅·냉장고

에어콘·냉동·전기·히팅·세탁기
시설·판매·수리
●정확한 진단 ◆예방및 각종 고장 정비
●정확한 정비 ■캐나다 최상급 자격증 소지
24Hour Service
☎ : 386－5655 531－5440 이 황 임

냉장고, 냉동기, 에어콘
(시설및 수리)
☎ : 221－5441 센츄리 냉동(원종성·이인식)

식 당

大 生 園
찐빵, 각종만두, 두부탕, 닭튀김, 왕새우 볶음,
소고기 철판구이, 각종 볶은밥, SEA FOOD.
월～목 11 : 30AM～1 : 00AM, 화 : CLOSE
금, 토 10 : 30AM～2 : 00AM, 일 2 : 00PM～12 : 00PM
☎ : 929－5048, 961－3539

자동차수리

ANCHOR AUTO BODY
●완전한 차체수리 ●무료견적
●두꺼운 페인팅 ●토잉 써비스
●Rust Proofing
846 RICHMOND ST. W. TOR.
☎ : (B) 862－1433, (R) 493－8792 송 창 섭

자동차 수리 일체 :
20 ROGERS RD.
☎ : 651－9324(B), 226－5430(R) 변 일 원

라지에타 개스탱크·히터·워터펌프 수리
CITY WIDE RADIATOR CO.
☎ : (B) 245－1978, (R) 248－6032 김 용 한

기 타

PICTURE FRAME WAREHOUSE
각종액자, 오일페인팅(유화)판매 조 혜 숙
32A Rexdale Blvd., Rexdale ☎ : 746－2120

새한칼라 현상소
630 BLOOR ST. W. TORONTO. ☎535-7772
●결혼 ●돌사진 ●각종 증명사진
●회갑 ●출장환영 ●현상, 인화, 확대

병원 감독자가 될 수 있는 코스를 택하고 싶으신분
시간당 $7, 일주일 코스
☎ : 961－1057

사무실 렌트

가게렌트 : 부촌안에 있는 프라자 BURN KING, BAKERY DELICATESSEN 또는 COIN LAUNDRY
좋은 장소임 1600－2600 sq. ft.(싼렌트)
531 WEDGEWOOD DR. BURLINGTON
☎ : 844－3151, 844－0121

구 혼

구 혼
26세로 무슨 일이든 최선을 다하는 건강한 남자로 알뜰한 신부를 찾고 있읍니다.
☎ : 1－387－2327 미스타 김